

# 문학 영역 5개년 기출 모의고사

## 학습은 이렇게!

수능과 모의평가 기출문제 중에서 문학 영역만 뽑아서

15회 모의고사로 구성하였습니다.

총 30분 안에 한 회 모의고사를 풀고, 정답을 확인합니다.

이때, 해설편의 '작품 핵심 스스로 찾기'를 통해

분석적으로 글을 읽는 방법을 익히고,

문제 해결의 단서를 빠르게 찾아내는 훈련을 합니다.

또한 고난도 문제의 '쌤 특강'과 1등급 선배들의 '문제 해결 TIP'으로

전략적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는 노하우를 익힙니다.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동녘 두던 밧기 크나큰 너븐 들히  
만경(萬頃) 황운(黃雲)이 혼 빗치 되야 있다  
중양이 거의로다 내노리 흐자스라  
블근 게 여믈고 높은 뚝기 슬져시니  
술이 니글선정 버디야 업슬소나  
전가(田家) 흥미는 날로 기퍼 가노매라  
살여흘 긴 몰래에 밤불이 불가시니  
㉠ 게 잡는 아히들이 그물을 훑터 있고  
호두포 엔 구비에 아적들이 미러오니  
㉡ 뚝든빅 애내성(欸乃聲)이 고기 쫓는 당시로다  
경(景)도 도커니와 생리(生理)라 괴로오라

(중략)

어와 이 청경(淸景) 갑시 이실 거시런들  
적막히 다든 문에 내 분으로 드러오라  
사조(私照) 업다 호미 거즌말 아니로다  
㉢ 모재(茅齋)에 빗천 빗치 옥루(玉樓)라 다들소나  
청준(淸樽)을 밧세 열고 큰 잔의 막둑 브어  
㉣ 죽엽(竹葉) 그늘 술를 들빗 조차 거후로니  
표연흔 일흥(逸興)이 저기면 놀리로다  
이적선(李謫仙) 이러하야 들을 보고 밧치닷다  
춘하추동에 경물이 아름답고  
주야조모(晝夜朝暮)에 완상이 새로오니  
㉤ 몸이 한가하나 귀 눈은 겨를 업다  
여생이 언마치리 백발이 날로 기니  
세상 공명은 계륙이나 다들소나  
㉥ 강호 어조(魚鳥)애 새 밧세 깎퍼시니  
옥당금마(玉堂金馬)의 몽혼(夢魂)이 섯기였다  
초당연월(草堂煙月)의 시름업시 누워 이서  
촌주강어(村酒江魚)로 장일취(長日醉)를 원(願)호노라  
이 몸이 이러구롬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 신계영, 「월선헌십육경가」

- 호두포 : 예산현의 무한천 하류.
- 애내성 : 어부가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노랫소리.
- 사조 : 사사로이 비춤.
- 모재 : 따로 지붕을 이어 지은 집.
- 옥당금마 : 관직 생활.
- 몽혼 : 꿈.

[A]

나 어촌(漁村)은 나의 벗 공백공의 자호(自號)다. 백공은 나와 태어난 해는 같으나 생일이 뒤이기 때문에 내가 아우라고 한다. 풍채와 인품이 소탈하고 명랑하여 사랑할 만하다. 대과에 급제하고 좋은 벼슬에 올라, 갓끈을 나누끼고 인끈을 두르고 필기를 위한 붓을 귀에 꽂고 나라의 옥새를 주관하니, 사람들은 진실로 그에게 원대한 기대를 하였으나, 담담하게 강호의 취미를 지니고 있다. 가끔 흥이 무르익으면, 「어부사」를 노래한다. 그 음성이 맑고 밝아서 천지에 가득 찰 것 같다. 증자가 상송(商頌)을 노래하는 것을 듣는 듯하여, 사람의 가슴으로 하여금 멀리 강호에 있는 것 같게 만든다. 이것은 그의 마음에 사욕이 없어 사물에 초탈하였기 때문에 소리의 나타남이 이와 같은 것이다.

하루는 나에게 말하기를,

“나의 뜻은 어부(漁父)에 있다. 그대는 어부의 즐거움을 아는가. 강태공은 성인이니 내가 감히 그가 주 문왕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만남을 기약할 수 없다. 엄지릉은 현인이니 내가 감히 그의 깨끗함을 바랄 수는 없다. ㉠ 아이와 어른들을 데리고 갈매기와 백로를 벗하며 어떤 때는 낚시대를 잡고, ㉡ 외로운 배를 노 저어 조류를 따라 오르고 내리면서 가는 대로 맡겨 두고, 모래가 깨끗하면 뱃줄을 매어 두고 산이 좋으면 그 가운데를 흘러간다. ㉢ 구운 고기와 신선한 생선회로 술잔을 들어 주고받다가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며 바람은 잔잔하고 물결이 고요한 때에는 배에 기대어 길게 휘파람을 불며, 돛대를 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 흰 물결을 일으키고 맑은 빛을 헤치면, 멀고 멀어서 마치 성사를 타고 하늘에 오르는 것 같다. 강의 연기가 자욱하고 짙은 안개가 내리면, 도롱이와 샷갓을 걸치고 그물을 걷어 올리면 금빛 같은 비늘과 옥같이 흰 꼬리의 물고기가 제멋대로 펄떡거리며 뛰는 모습은 ㉤ 넉넉히 눈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 밤이 깊어 구름은 어둑고 하늘이 캄캄하면 사방은 아득하기만 하다. 어촌의 등불은 가물거리는데 배의 지붕에 빗소리는 울어 느리다가 빠르다가 우수수하는 소리가 차갑고도 슬프다. …(중략)… 여름날 뜨거운 햇빛에 더위가 쏟아질 적엔 버드나무 늘어진 낚시터에 미풍이 불고, 겨울 하늘에 눈이 날릴 때면 차가운 강물에서 홀로 낚시를 드리운다. 사계절이 차례로 바뀌건만 어부의 즐거움은 없는 때가 없다.

저 영달에 얽매어 벼슬하는 자는 구차하게 영화에 매달리지만 나는 만나는 대로 편안하다. 빈궁하여 고기잡이를

하는 자는 구차하게 이익을 계산하지만 나는 스스로 유유 자적을 즐긴다. 성공과 실패는 운명에 맡기고, 진퇴도 오직 때를 따를 뿐이다. 부귀 보기를 뜬구름과 같이 하고 공명을 헌신짝 벗어 버리듯 하여, 스스로 세상의 물욕 밖에서 방랑하는 것이니, 어찌 시세에 영합하여 이름을 남시질하고, 벼슬길에 빠져들어 생명을 가볍게 여기며 이익만 취하다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자와 같겠는가. ㉠ 이것이 내가 몸은 벼슬을 하면서도 뜻은 강호에 두어 매양 노래에 의탁하는 것이니,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내가 듣고 즐거워하며 그대로 기록하여 백공에게 보내고, 또한 나 자신도 살피고자 한다. 을축년 7월 어느 날.

- 권근, 「어촌기」

● **성사** : 옛날 장군이 타고 하늘에 다녀왔다고 하는 배.

## 0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는 전원에서의 생활상이, ㉡에는 자연과 동화되는 삶이 나타난다.
- ② ㉠에는 한가로운 자연 속 흥취가, ㉡에는 고독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나타난다.
- ③ ㉠에는 자연현상에서 연상된 그리움의 대상이, ㉡에는 배의 움직임에 따른 청아한 풍경이 나타난다.
- ④ ㉠에는 운치 있는 풍류의 상황이, ㉡에는 자연에서 누리는 흥겨운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
- ⑤ ㉠에는 변화하는 자연에서 얻는 즐거움이, ㉡에는 생동감 넘치는 자연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나타난다.

## 02

〈보기〉를 바탕으로 [A]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17세기 가사 「월선헌십육경가」는 월선헌 주변의 16경관을 그린 작품으로 자연에서의 유유자적한 삶을 읊으면서도 현실적 생활 공간으로서의 전원엔 새롭게 관심을 두었다. 그에 따라 생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풍요로운 결실, 여유로운 놀이 장면, 그리고 생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정서 등을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현장감 있게 노래했다.

- ① 전원생활에서 목격한 풍요로운 결실을 ‘만경 황운’에 비유해 드러냈군.
- ② 전원생활 가운데 느끼는 여유를 ‘내노리 흥자스라’와 같은 청유형 표현을 통해 드러냈군.
- ③ 전원생활의 풍족함을 여문 ‘불근 계’와 살진 ‘놀은 둥’과 같이 색채 이미지에 담아 드러냈군.
- ④ 전원생활에서의 현장감을 ‘밤불이 불가시니’와 ‘아적물이 미러오니’와 같은 묘사를 활용해 드러냈군.
- ⑤ 전원생활의 여유를 즐기면서도 생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고단함을 ‘생리라 괴로오랴’와 같은 설의적인 표현으로 드러냈군.

## 03

(나)의 ‘공백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에 따른 공간의 다채로운 모습을 제시하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상대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함을 언급하여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 있다.
- ③ 상대에 대해 심리적 거리감을 느껴 자신의 생각 표현을 자제하고 있다.
- ④ 질문에 답변하며 현실에 대처하는 자신의 태도를 밝히고 있다.
- ⑤ 대상과 관련된 행위를 열거하며 자신의 무력감을 깨닫고 있다.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어촌기」의 작가는 벳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작가는 벳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근거를 벳과의 관계와 그의 성품에 대한 평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을 드러내며 벳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다.

- ① 벳이 ‘영화’와 ‘이익’을 중시하는 삶을 거부한다는 것을 통해 벳의 가치관을 알 수 있군.
- ② 작가가 벳의 말을 ‘즐거워하며’ 자신도 살피려 하는 것을 통해 작가는 벳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작가가 벳을 ‘아우’로 삼고 있다는 것을 통해 벳이 추구하는 삶의 자세가 작가로부터 전해 받은 것임을 알 수 있군.
- ④ 벳이 ‘강태공’과 ‘엄자룡’을 들어 ‘내가 감히’라는 말을 언급한 것을 통해 그들의 삶에 미치지 못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벳의 겸손한 성품을 알 수 있군.
- ⑤ 작가가 벳이 ‘대과에 급제’하여 기대를 받고 있는데도 ‘마음에 사욕이 없다’고 평한 것을 통해 벳의 말이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감을 알 수 있군.

05

㉮와 ㉯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는 ‘내가 ‘강호’에서의 은거를 긍정하지만 정치 현실에 미련이 있음’, ㉯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에 몸담고 있지만 ‘강호’에 은거하려는 지향을 나타낸다.
- ② ㉮는 ‘내가 ‘강호’에서의 은거를 마치고 정치 현실로 복귀하려는 의지를’, ㉯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에서 신뢰를 잃어 ‘강호’에 은거하려는 소망을 나타낸다.
- ③ ㉮는 ‘내가 ‘강호’에서 경치를 완상하며 정치 현실의 번뇌를 해소하려는 자세를’, ㉯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과 같등하여 ‘강호’에 은거하려는 자세를 나타낸다.
- ④ ㉮는 ‘내가 ‘강호’에서 늙어 감에 체념하면서도 정치 현실을 지향함을’, ㉯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을 외면하면서 ‘강호’에 은거하려는 염원을 나타낸다.
- ⑤ ㉮는 ‘내가 ‘강호’에서 임금께 맹세하며 정치 현실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태도를’, ㉯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의 폐단에 실망하며 ‘강호’에 은거하려는 희망을 나타낸다.

[06~0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 평도 채 안 되는 구멍가게는 중풍으로 쓰러져 정상적 건강 상태가 아니었던 아버지의 유일한 수입원이자 생존이 유였다. 때문에 ㉠그 구멍가게에 대한 아버지의 몰두와 자존심은 각별했다.

한번은 내가 아버지가 가게를 잠깐 비운 사이에 곁에 허연 인공 설탕 가루를 묻힌 ‘미키대장군’이라는 캐러멜을 하나 아무 생각 없이 널름 집어먹은 적이 있었다. 하나에 이원, 다섯 개에 십 원이었다. 잠시 뒤에 돌아온 아버지는 단박에 그 사실을 알아채고는 불같이 화를 내며 내 목덜미에 당수를 한 대 세계 내려꽂는 것이었다. 그 캐러멜 갑 안에 미키대장군이 몇 개 들어 있는지조차 흰히 꿰차고 있는 아버지였다.

— 이런 민한 중간나래! 양생이처럼 기러케 쓸라닥질을 하자면 이 가게 안에 뭐이가 하나 제대로 남아나겠니, 응?

그리고 나서는 좀 머쓱했는지 입이 한 발쯤 튀어나와 뽀로통해서 서 있는 내게 미키대장군 네 개를 집어 내미는 거였다. 어차피 짝이 맞아야 파니까니, 하면서 억지로 내 손아귀에 쥐어주었다. ㉡나는 그 무허가 불량 식품인 캐러멜 네 개가 끈끈하게 녹아내릴 때까지 먹지 않고 쥘 채 서 있었다.

— 넌 좀 털어 놓지 못하겠니, 으잉?

목덜미에 아버지의 가벼운 당수를 한 대 더 얹은 다음에 야 한입에 털어 넣고 돌아서 나왔다. 아버지도 가게 일을 수월하게 보려면 잔심부름꾼인 나를 무시하고는 아쉬울 때가 많을 터였다. 워낙 짧은 밑천으로 가게를 꾸려 가자니 아버지는 물건 구색을 맞추느라 하루에도 많을 때는 세 번까지 시장통 도매상으로 정부미 포대를 거머쥐고 종종걸음을 쳐야 했고, 막내인 나는 번번이 아버지의 뒤로 팔을 늘어뜨린 채 졸졸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땐 그게 죽도록 싫었다. 하마 시장통에서 야구 글러브를 끼거나 조립용 신형 무기 장난감 상자를 든 반 친구를 만나거나, 심지어 과외나 주산 학원을 가는 여자 아이들을 만나는 날에는 정말 그 자리에서 혀를 빼물고 죽고 싶은 생각 뿐이었다.

(중략)

어느 날이었다. 아버지와 나는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그 정부미 자루를 날라 왔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 한숨을 돌린 뒤 자루를 풀고 물건을 정리해 보니 스무 병이 와야 할 소주가 두 병이 모자란 채 열여덟 병만 온 것이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맞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금세 하얗게 질렸다. 왜냐하면 그 덜 온 두 병을 빼고 나면 나머지 것들을 몽땅 팔아 봤자 결국 본전치기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내 등을 떼밀어 물건을 받아 온 수도상회의 후부리 영감한테 내려 보냈다. 아버지는 말주변도 말주변이었지만

중풍 후유증 때문에 약간의 언어 장애가 있어 일부러 나를 보냈던 것이다.

— 뭐 하러 왔네?

가게 안에 복적거리는 손님들에게 썸을 치러 주느라 몇 번이고 주판알을 고르는 데 바쁜 흑부리 영감의 눈길을 잡아 두는 데 성공한 나는 더듬더듬 자초지종을 말했다. 그러나 귤등에 연필을 꽂은 채 심술이 덕지덕지 모여 이뤄진 듯한 왼쪽 이마뼈의 눈갈사탕만 한 흑을 어루만지며 듣던 **㉠ 흑부리 영감은 풍기 때문에 왼쪽으로 힐끗 돌아간 두터운 입술을 떠들쳐 굵은 침방울을 내 얼굴에 마구 튀겼다.** 애초 자기 눈앞에서 까 보이지 않은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막무가내였다. 나중엔 아버지까지 함께 내려가서 하소연을 해 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정 그렇게 우기면 거래를 끊겠다는 협박성 경고뿐이었다. 거래가 끊긴다면 아버지한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흑부리 영감은 아버지한테 무슨 큰 특혜를 내려 주듯이 거래를 터 준다고 허락을 놓았었다. 같은 함경도 동향이기 때문이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하긴 흑부리 영감한테는 매번 소주 열 병 일찍에다 새우깡 열 봉지, 껌 대여섯 개, 빵 예닐곱 개 등 일반 소매가격 구매자보다 더 많은 물건을 떼어 가지도 않으면서 부득부득 도맷값으로 해 달라고 통사정을 해 쌓는 아버지 같은 사람 하나쯤 **거래를 끊어도** 장부상 거의 표가 나지 않을 것이었다.

결국 아버지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 당신의 자그마한 구멍가게로 돌아와 나머지 열여덟 병의 소주를 낫 나간 사람처럼 쓰다듬던 아버지는 기어코 아들인 내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했다. 아! 아버지…….**

— 김소진, 「자전거 도둑」

## 07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 평도 채 안 되는 구멍가게’를 각별한 애정으로 운영하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나’에게 아버지의 ‘생존 이유’를 짐작하게 했겠어.
- ② ‘캐러멜’을 먹었다고 화를 냈다가 남은 ‘캐러멜’을 ‘나’의 손에 쥐어 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나’에게 아버지가 속마음을 드러내는 데 서툰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했겠어.
- ③ ‘팔을 늘어뜨린 채’ 아버지를 따르던 ‘나’가 ‘시장통’에서 ‘반 친구’를 만났던 경험은, ‘나’에게 궁핍으로 인한 내면의 상처로 남은 기억이겠어.
- ④ ‘중풍 후유증’ 때문에 ‘언어 장애’가 있는 아버지 대신 흑부리 영감을 상대하게 된 경험은, ‘나’에게 어린 나이에 이해타산적인 어른들의 세계를 느끼게 한 기억이겠어.
- ⑤ ‘거래를 끊어도’ 표가 나지 않을 사람이었던 아버지와 거래를 끊지 않은 흑부리 영감에 대한 기억은, ‘나’에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느끼게 했겠어.

## 06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흑부리 영감의 위협적인 경고 때문에, 아버지는 흑부리 영감의 주장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 ② 아버지는 소주 두 병을 털 받아 왔기 때문에 곤란했지만, ‘나’에게 당황한 내색을 하지 않았다.
- ③ 아버지는 ‘나’의 잘못을 묵인했지만, 흑부리 영감과 그의 잘못된 거래는 바로잡으려 노력했다.
- ④ 흑부리 영감은 가게 일로 바빴지만, ‘나’의 자초지종을 듣고 마지못해 ‘나’의 염려를 덜어 주었다.
- ⑤ 아버지는 ‘나’의 도움이 필요했기에, 친구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우울해 하는 ‘나’를 기분 좋게 하려 노력했다.

## 08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이 소설의 서술자인 성인 ‘나’는 주로 세 가지 서술 방식을 활용한다. 첫째는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나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독자는 서술자의 해석을 통해 사건을 이해하게 된다. 둘째는 서술자가 인물의 외양이나 행위만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독자는 그 묘사가 갖는 의미를 스스로 해석해야 한다. 셋째는 서술자가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유년 ‘나’의 눈에 보이는 다른 인물의 외양이나 행위를 묘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독자는 사건의 현장을 직접 보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으며, 둘째 방식에서처럼 그 묘사에 대해 해석해야 한다. 셋째 방식에 유년 ‘나’의 심리가 함께 서술되면 독자는 인물의 심리에 쉽게 공감하게 된다.

- ① ㉠: 서술자가 아버지의 내면을 설명하여 독자는 서술자의 해석을 통해 상황을 이해하겠군.
- ② ㉡: 서술자가 유년 '나'의 행위를 묘사하여 독자는 그 행위가 갖는 의미를 스스로 해석하겠군.
- ③ ㉢: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아버지의 내면이 직접적으로 서술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독자라면 아버지의 내면을 스스로 해석하겠군.
- ④ ㉣: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흑부리 영감의 모습과 행동을 묘사했다고 생각한 독자라면 장면을 직접 보는 듯한 느낌을 받겠군.
- ⑤ ㉤: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아버지의 행위와 표정을 묘사하면서 유년 '나'의 심리를 함께 제시하여 독자는 그 심리에 공감하겠군.

[09~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아들 유세기가 부모의 허락 없이 백공과 혼사를 결정했다 고 여긴 선생은 유세기를 집에서 내쫓는다.

백공이 왈,

“혼인은 좋은 일이라 서로 헤아려 잘 생각할 것이니 어찌 **이같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한림의 재모를 아껴 이같이 기별해 사위를 삼고자 하였더니 선생 형제는 도학군자라 예가 아닌 것을 문책하시는도다. 내가 마땅히 곡절을 말하리라.”

이에 백공이 유씨 집안에 이르러 선생 형제를 보고 인사를 하고 나서 흔쾌히 웃으며 가로되,

“제가 두 형과 더불어 죽마고우로 절친하고 또 아드님의 특출함을 아껴 제 딸의 배필로 삼고자 하여, 어제 세기를 보고 여차여차하니 아드님이 단호하게 말하고 돌아가더이다. 제가 더욱 흠모하여 염치를 잊고 거짓말로 일을 꾸며 구혼하면서 ‘정약’이라는 글자 둘을 더했으니 이는 진실로 저의 희롱함이외다. 두 형께서 과도히 곧이듣고 아드님을 엄히 꾸짖으셨다 하니, 혼사에 도리어 휘방이 되었으므로 어찌 우습지 않으리까? 원컨대 두 형은 아드님을 용서하여 아드님이 저를 원망하게 하지 마오.”

선생과 승상이 바야흐로 아들의 죄가 없는 줄을 알고 기뻐하면서 사례하여 왈,

“저희 자식이 분에 넘치게 공의 극진한 대우를 받으니 마땅히 그 후의를 받들 만하되, 이는 선조로부터 대대로 내

려오는 가법이 아니기에 감히 재취를 허락하지 못하였소이다. 저희 자식이 방자함이 있나 통탄하였더니 그간 곡절이 이렇듯 있었소이다.”

백공이 화답하고 이윽고 돌아가서 다시 혼삿말을 이르지 못하고 딸을 다른 데로 시집보냈다. 선생이 백공을 돌려보낸 후에 한림을 불러 앞으로 더욱 행실을 닦을 것을 훈계하자 한림이 절을 하면서 명령을 받들었다. 차후 더욱 예를 삼가고 배우기를 힘써 학문과 도덕이 날로 숙연하고, 소 소저와 더불어 백수해로하면서 여덟 아들, 두 딸을 두고, 집안에 한 명의 첩도 없이 부부 인생 희로를 요동함이 없더라.

승상의 둘째 아들 세형의 자는 문희이니, 형제 중 가장 빼어났으니 산천의 정기와 일월의 조화를 타고 태어나 아름다운 얼굴은 운택한 옥과 빛나는 봄꽃 같고, 호탕하고 깨끗한 풍채는 용과 호랑이의 기상이 있으며, 성품이 호기롭고 의협심이 강하여 맑고 더러움의 분별을 조금도 잃지 않으니, 부모가 매우 사랑하여 며느리를 널리 구하더라.

(중략)

화설, 장 씨 ㉠이 화정에 돌아와 긴 단장을 벗고 난간에 기대어 하늘가를 바라보며 평생 살아갈 계획을 골똘히 헤아리자, 한이 눈썹에 맺히고 슬픔이 마음속에 가득하여 생각하되,

“내가 재상가의 귀한 몸으로 유생과 백년가약을 맺었으니 마음이 흡족하고 뜻이 즐거울 것이거늘, 천자의 귀함으로 한 부마를 뽑는데 어찌 구태여 나의 아름다운 낭군을 빼앗아 가 위세로써 나로 하여금 공주 저 사람의 아래가 되게 하셨는가? 도리어 저 사람의 덕을 찬송하고 은혜를 읊어 한없는 영광은 남에게 돌려보내고 구차한 자취는 내 일신에 모이게 되었다.

[A] 우주 사이는 우리러 바라보기나 하려니와 나와 공주의 현격함은 하늘과 땅 같도다. 나의 재주와 용모가 저 사람보다 떨어지는 것이 없고 먼저 혼인 예물까지 받았는데 이처럼 남의 천대를 감심할 줄 어찌 알리오? 공주가 덕을 베풀수록 나의 몸엔 빛이 나지 않으리니 제 짐짓 능활하여 아버지, 어머니이나 시누이를 제 편으로 끌어들인다면 낭군의 마음은 이를 좇아 완전히 달라질지라. 슬프다, 나의 앞날은 어이 될고?”

생각이 이에 미치자 북받쳐 오르는 한이 마음속에 가득 쌓이기 시작하니 어찌 좋은 뜻이 나리오? 정히 눈물을 머금고 마음을 붙일 곳 없어하더니, 문득 세형이 보라색 두건과 녹색 도포를 가볍게 나부끼며 이르러 장 씨의 참담한 안색을 보고 옥수를 잡고 어깨를 비스듬히 기대게 하며 물어 왈,

“그대 무슨 일로 슬픈 빛이 있나뇨? 나를 좇음을 원망하는가?”

장 씨가 잠시 동안 탄식 왈,

## 10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와 [B]는 모두 과거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② [A]와 [B]는 모두 비유적 진술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③ [A]는 [B]와 달리 타인에 대한 자신의 원망을 의문형 표현을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④ [B]는 [A]와 달리 대화 상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A]는 앞으로의 일을 추정하는, [B]는 지난 일을 토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우려를 제시하고 있다.

[B]

“낭군은 부질없는 말씀 마옵소서. 제가 낭군을 좇는 것을 원망했다면 어찌 깊은 구방에서 홀로 늙는 것을 감심하였사오리까? 다만 제가 귀덕에 들어온 지 오륙일이 지났으나 좌우에 친한 사람이 없고 오직 우려르는 바는 아버님, 어머님과 낭군뿐이라 어린 여자의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바이옵니다. 공주가 위에 계셔 온 집의 권세를 오로지 하시니 그 위외와 덕택이 저로 하여금 변변찮은 재주 가진 하졸이 머릿수나 채워 우물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같게 만드옵니다. 제가 감히 항거할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신세가 구차하여 슬프고, 진양궁에 나아가면 궁비와 시녀들이 다 저를 손가락질하며 비웃어 한 가지 일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옵고, 제 입에서 말이 나면 일천여 시녀가 다 제 입을 가리니, 공주의 은덕에 의지하여 겨우 실례를 면하고 돌아왔사옵니다.”

부마가 바야흐로 장 씨의 외로움을 가련하게 여기고 공주의 위세가 장 씨를 억누르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고 있다가 장 씨의 이렇듯 애원한 모습을 보자 크게 불쾌하여 장 씨를 위한 애정이 샘솟는 듯하였다. 은근하고 간곡하게 장 씨를 위로하고 그 절개와 외로움에 감동하여 이날부터 발자취가 **㉠**이화정을 떠나지 않았다. 연리지와 같은 신희의 정은 양왕의 꿈에 빠진 듯 어지럽고, 낙천의 마음이 취한 듯 기쁘고 즐거워 바라던 바를 다 얻은 듯한 마음은 세상에 비할 데가 없더라.

— 작자 미상, 「유씨삼대록」

## 09

이같이 좋지 않은 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백공의 거짓말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 ② 백공이 한림을 곤경에 처하게 한 일이다.
- ③ 선생과 승상 사이에서 의견 대립이 심화된 일이다.
- ④ 한림이 선생과 승상으로부터 꾸지람을 당한 일이다.
- ⑤ 백공이 한림을 자신의 딸과 혼인시키려다 일어난 일이다.

## 11

‘장 씨’를 중심으로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학문을 연마하는 공간이고, ㉡은 덕행을 닦는 공간이다.
- ② ㉠은 불신을 드러내는 공간이고, ㉡은 조소를 당하는 공간이다.
- ③ ㉠은 한탄을 드러내는 공간이고, ㉡은 애정을 확인하는 공간이다.
- ④ ㉠은 계책을 꾸미는 공간이고, ㉡은 외로움을 인내하는 공간이다.
- ⑤ ㉠은 선후 시비를 따지는 공간이고, ㉡은 오해를 해소하는 공간이다.

〈보기〉를 참고하여 뒷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유씨삼대록」은 유씨 3대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연결한 국문 장편 가문 소설이다. 각 이야기는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갖추고 있어 독립적이지만, 혼사나 그로부터 파생된 각각의 갈등이 동일한 가문 내에서 전개된다는 점에서 연결된다. 이러한 갈등은 가법이나 인물의 성격에서 유발된다. 가문의 구성원들은 혼사를 둘러싼 갈등이 가문의 안정과 번영을 저해한다고 여겼기에, 가문 차원에서 이를 해결해 간다.

- ① 유세기 이야기와 유세형 이야기를 보니, 각각의 갈등이 한 가문의 혼사를 중심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두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유세기의 혼사 문제에 선생과 승상이 관여한 것을 보니, 혼사를 둘러싼 갈등 해결이 가문 구성원들의 문제로 다루어짐을 알 수 있군.
- ③ 유세기가 혼사와 관련한 곤욕을 치른 것과 유세형이 공주를 멀리 한 것을 보니, 가법과 인물의 성격 간의 대립이 갈등의 원인임을 알 수 있군.
- ④ 백공이 유세기를 사위 삼으려는 것과 천자가 유세형을 부마 삼은 것을 보니, 혼사가 혼인 당사자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음을 알 수 있군.
- ⑤ 유세기가 평생 첩을 두지 않고 소 소저와 해로했다는 것을 보니, 유세기를 둘러싼 혼사 갈등이 해소되며 이야기 하나가 마무리됨을 알 수 있군.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 가는 것일까,

㉠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 바람이 자주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강물이 자주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 윤동주, 「바람이 불어」

**나** 새는 새장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매번 머리를 부딪치고 날개를 상하고 나아 보이는,  
창살 사이의 간격보다 큰, 몸뚱어리.  
하늘과 산이 보이고 ㉢ 울음 실은 공기가 자유로이 드  
나드는

그러나 사랑거리며 날개를 굳게 다리에 매달아 놓는,  
그 적당한 간격은 슬프다.

그 창살의 간격보다 넓은 몸은 슬프다.

넓게, 힘차게 뻗을 날개가 있고

㉣ 날개를 힘껏 떠받쳐 줄 공기가 있지만

새는 다만 네 발 달린 짐승처럼 걷는다.

부지런히 걸어 다리가 굽어지고 튼튼해져서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걷는다.

새장 문을 활짝 열어 놓아도 날지 않고

닭처럼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다.

㉤ 걸으면서, 가끔, 창살 사이를 채우고 있는 바람을 부  
리로 쫓아 본다, 아직도 벽이 아니고

공기라는 걸 증명하려는 듯.

우리보다도 더 환하고 선명하게 전망이 보이고

울음 소리 숨내음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고안된 공기,

그 최첨단 신소재의 부드러운 질감을 음미하려는 듯.

— 김기택, 「새」



## 13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불러 가는'이라는 피동 표현을 통해 자신이 처한 현실에 순응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이유가 없을까'라는 물음의 형식으로 화자의 정신적 고통에 타당한 이유가 없음을 단정하고 있다.
- ③ '사랑한 일'과 '슬퍼한 일'을 병치하여 화자의 개인적 불행이 시대에 대한 무관심의 원인임을 암시하고 있다.
- ④ '없다'의 반복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과 내면을 응시하는 화자의 반성적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 ⑤ '흐르는데'와 '섰다'의 대비를 통해 변함없는 자연에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14

다음에 제시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기와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물의 움직임을 통해 지각되고, 계속 움직이며 대상에 영향을 주는 힘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이런 속성이 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봅시다.

- ① ㉠에서는 움직임이라는 '바람'의 속성을 '괴로움'이라는 내면의 흔들림을 지각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 ② ㉡에서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 '내 발'을 '반석 위'로 이끄는 힘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에서는 자유롭게 창살 사이를 이동하는 '공기'의 속성을 '새'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 ④ ㉣에서는 '날개'를 '힘껏' 떠받치는 '공기'의 속성을 활용해 '새'의 '날개'가 '공기'의 힘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 ⑤ ㉤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 '창살 사이'의 빈 공간을 쪼는 '새'의 동작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15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새」에서 '새장에 갇힌 새'는 일상의 안온함에 길들여 자유를 억압하는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의 알레고리이다. '새'의 행동에 대한 묘사는 일상에 충실할수록 잠재된 힘과 본질을 잃어 가는 아이러니와, 일상에 만족하며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준다.

- ① 몸이 창살에 부딪치고 나서야 창살의 간격이 보이는 새는, 일상에 갇힌 자신을 의식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주는 군.
- ② 바깥 풍경이 보일 정도로 적당한 간격의 창살로 된 새장은, 안온함과 억압성이라는 양가성을 지닌 일상을 보여 주는 군.
- ③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부지런히 걷는 새는, 성실한 생활이 잠재력의 상실로 이어지는 아이러니를 보여 주는 군.
- ④ 새장 문이 열려도 날지 않고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 새는,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 오히려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상황을 보여 주는 군.
- ⑤ 하늘을 자유롭게 날도록 날개를 밀어 올리는 공기를 음미할 대상으로만 여기는 듯한 새는,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고 일상에 안주하려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주는 군.

문학 영역 01회 모의고사가 끝났습니다.  
‘해설편’에서 제공하는 수능 전문가의 경향 분석과  
1등급 선배들의 생생한 문제 풀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정답 확인

영역	문항 번호	정답	배점	오답 문항 체크	응시자 정답률	문제 유형	
고전 시가 + 고전 수필	01	②	2점		63%	작품의 종합적 감상	샘 특강
	02	⑤	3점		8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03	①	2점		88%	인물의 말하기 방식 파악	
	04	③	2점		90%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샘 특강
	05	①	2점		80%	표현상의 특징 파악	
현대 소설	06	①	2점		94%	작품의 내용 파악	
	07	⑤	2점		90%	인물의 심리 파악	
	08	⑤	3점		76%	서술상의 특징 파악	
고전 소설	09	③	2점		76%	작품의 내용 파악	
	10	④	2점		87%	대화의 특징 파악	
	11	③	2점		92%	작품 배경의 의미와 역할 파악	
	12	③	3점		72%	작품의 종합적 이해	샘 특강
현대시	13	④	2점		71%	구절의 의미 파악	
	14	②	2점		73%	소재의 기능 파악	
	15	④	3점		63%	외적 준거에 따른 새로운 가치 발견	샘 특강
내 점수	_____ / 34						

### 등급 체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전체 등급컷	91	84	76	64	54
문학 등급컷	34	34	32	28	23
내 등급 체크 ✓					

### 수험생 속풀이 한 컷



### 시험 총평

6개 작품 중 4개가 EBS 연계로 출제되었는데, 지문 연계의 정도도 꽤 높은 편이었다. 고전 시가는 일부 대목이 겹치고, 현대 소설과 고전 소설의 경우 비록 대목은 달라도 인물의 성격이나 갈등의 양상 측면에서 볼 때 연계 교재 수록 부분과 직접적 관련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반적으로 그리 까다롭지 않은 편이기는 했지만, 몇몇 문제의 경우 심화된 준거를 <보기>나 '선생님의 안내'와 같은 형식으로 제시하여 출제 요소가 다소 새롭게 보이도록 하였다.

### 출제 지문과 유형 분석

#### [01~05] 고전 시가 + 고전 수필 세트

신계영의 은일 가사 「월선힌십육경가」와 권근의 수필 「어촌기」로 복합 지문이 구성되었는데, 둘 다 학생들에게 낯선 작품이다. 다만, 「월선힌십육경가」는 EBS 교재에서 연계 출제되었고 대목도 일부 겹치게 구성했다.

**학습 비책** 고전 시가의 시어나 시구가 지닌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앞뒤 문맥과 전체적인 정서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 [06~08] 현대 소설 세트

EBS 연계 교재에 수록되었던 김소진의 「자전거 도둑」이 출제되었으며 큰 부담 없이 읽고 풀 수 있는 수준이었다.

**학습 비책** EBS 연계 교재에 수록된 작품의 경우 중심인물들의 성격, 주요한 갈등 양상과 사건의 내용 등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 수능 32번 문제(본 교재 8번)는 시점과 서술상 특징에 대한 심도 있는 문제이므로 잘 봐 둘 필요가 있다.

#### [09~12] 고전 소설 세트

EBS 연계 교재에 수록되었던 「유씨삼대록」이 출제되었다. 비록 대목이 다르기는 하지만 가문 소설의 중요 특징 요소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중략 이후 부분은 교재의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학습 비책** 기본적인 내용 파악, 인물의 발화 분석, 배경의 기능 이해,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등 전형적인 출제 요소들이 문제로 이어짐을 확인하고, 앞으로는 지문 독해 시에 이를 눈여겨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 [13~15] 현대시 세트

윤동주의 「바람이 불어」와 김기택의 「새」가 세트 지문으로 출제되었다. 이 중 윤동주의 시는 EBS 연계 교재에 수록되었던 작품이다.

**학습 비책** 「바람이 불어」처럼 상징적이고 압축적으로 드러난 상황 속에서 화자의 정서를 파악해야 하는 시가 있고, 「새」처럼 어떤 대상에 대한 진술을 다른 대상, 특히 인간에 적용하여 비판적 주제 의식을 파악해야 하는 시가 있다. 이 두 경우를 포함하여 많은 가능성을 열어 둔 상태에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할 줄 알아야 한다.

# 월선헌십육경가 | 어촌기

**가**

동녘 두던 밭기 크나큰 너븐 들허

만경(萬頃) 황운(黃雲)이 흐 빗치 되어 있다

넓은 들panse 누렇게 익은 벼를 비유(은유법)  
중양이 거의로다 내노리 **흐자사라**

고기잡이  
블근 게 여믈고 **놀은** **뚝기** 슬져시니

술이 니글선정 버디야 업슬소냐

[A] 전가(田家) 흥미는 날로 기퍼 가노매라

전원생활의 재미와 흥취 → 주제 표현  
살여흘 긴 몰래에 **밤불이** 불가시니

㉠ **게** 잡는 아히들이 그물을 훑터 잇고

호두포 **엔** 구비에 **아적물**이 미러오니

면굴이  
㉡ **돛**터브 **애내성**(歎乃聲)이 고기 **푼**는 당식로다

경(景)도 도커니와 생리(生理)라 괴로오라

설의법, 경지도 좋고 생활도 즐겁다는 뜻 (중략)

▶ 본사 3 : 가을날 전원생활의 풍요와 여유

어와 이 청경(淸景) 감시 이실 거시런들

적막히 다든 문에 내 분으로 드러오라

사조(私照) 업다 호미 거즌말 아니로다

달빛이 곱고 푸름, 비침, 화자가 임금의 은혜를 충분히 입고 있음을 표현  
㉢ **모재**(茅齋)에 **빗썬** **빗치** **옥루**(玉樓)라 **다들**소냐

청준(淸樽)을 **뺏**세 열고 큰 잔의 **막** **보**어

㉣ **죽엽**(竹葉) **ᄇ**는 술를 **들** **빗** **조차** 거후로니

표연흥 일흥(逸興)이 저기면 놀리로다

이적선(李適仙) 이려호야 들을 보고 **밋**치닷다

이백을 미화함  
춘하추동에 **경물**이 아름답고

주야조모(晝夜朝暮)에 **완상**이 새로오니

㉤ **몸**이 한가하나 **귀** **눈**은 **겨**를 **업**다

여생이 언마치리 **백발**이 날로 기니

세상 공명은 계륜이나 **다들**소냐 → 「」: 설의법, 속세의 공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닭의 갈비, 먹지니 먹을 것이 없고 버리자니 아까운 것을 말함  
㉥ **강호** 어조(魚鳥)에 새 **땃**세 **깁**퍼시니

옥당금마(玉堂金馬)의 **몽혼**(夢魂)이 **섯**기엿다

초당연월(草堂煙月)의 시름 업시 누워 이서

자연 속에서 한가로운 삶  
촌주강어(村酒江魚)로 **장일취**(長日醉)를 **원**(願)호노라

이 **몸**이 이려구름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유교적 충의 사상, 유학자의 자세

▶ 결사 : 자연에 은거하며 한가로운 삶을 보냄.  
- 신계영, 「월선헌십육경가」

- 호두포 : 예산현의 무한천 하류.
- 애내성 : 어부가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노랫소리.
- 사조 : 사사로이 비춤.
- 모재 : 따로 지붕을 이어 지은 집.
- 옥당금마 : 관직 생활.
- 몽혼 : 꿈.

## 작품 핵심 스스로 찾기

※ 스스로 작품의 핵심을 찾는 훈련을 한 후에 '빠르게 보기'에서 확인하세요.

### 가 신계영, 「월선헌십육경가」

1 시적 화자 '월선헌'에서  경치를 즐기는 나

2 정서와 태도 사계절 의 아름다움과 탈속의 한가로운 정서를 즐김.

#### 3 표현법

- 의 변화에 따라 사상을 전개함.
- 자연에서도 의 은혜에 감사하는 유교적 충의 사상을 담고 있음.
-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의 풍요로움을 표현함.

4 주제 자연을 즐기며 살아가는 의 즐거움

**나** 어촌(漁村)은 나의 벗 공백공의 자호(自號)다. 「백공은 나와 태어난 해는 같으나 생일이 뒤이기 때문에 내가 아우라고 한다.」 풍채와 인품이 소탈하고 명랑하여 사랑할 만하다. 대과에 급제하고 좋은 벼슬에 올라, 갓끈을 나누끼고 인끈을 두르고 필기를 위한 붓을 귀에 꽂고 나라의 옥새를 주관하니, 사람들은 진실로 그에게 원대한 기대를 하였으나, 담담하게 강호의 취미를 지니고 있다. 가끔 흥이 무르익으면, 「어부사」를 노래한다. 그 성음이 맑고 밝아서 천지에 가득 찰 것 같다. 증자가 상송(商頌)을 노래하는 것을 듣는 듯하여, 사람의 가슴으로 하여금 멀리 강호에 있는 것 같게 만든다. 이것은 그의 마음에 사욕이 없어 사물에 초탈하였기 때문에 소리의 나타남이 이와 같은 것이다.

▶ 공백공의 인품, 능력, 자연관 등을 소개함.

하루는 나에게 말하기를,

“나의 뜻은 어부(漁父)에 있다. 그대는 어부의 즐거움을 아는가. 「강태공은 성인이니 내가 감히 그가 주 문 벼슬이치와 대비되는 소재, 공백공의 삶을 대변함」 : 「중국의 고사 인용」 왕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만남을 기억할 수 없다. 엄자룡은 현인이니 내가 감히 그의 깨끗함을 바랄 수는 없다.」**㉠** 아이와 어른들을 데리고 갈매기와 백로를 벗하며 어떤 때는 낚시대를 잡고, **㉡** 외로운 배를 노 저어 조류를 따라 오르고 내리면서 가는 대로 맡겨 두고, 모래가 깨끗하면 뱃줄을 매어 두고 산이 좋으면 그 가운데를 흘러간다. **㉢** 구운 고기와 신선한 생선회로 술잔을 들어 주고받다가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며 바람은 잔잔하고 물결이 고요한 때에는 배에 기대어 길게 휘파람을 불며, 돛대를 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 흰 물결을 일으키고 맑은 빛을 헤치면, 멀고 멀어서 마치 성사를 타고 하늘에 오르는 것 같다. 강의 연기가 자욱하고 짙은 안개가 내리면, 도롱이와 샷갯을 걸치고 그물을 건어 올리면 금빛 같은 비늘과 옥같이 흰 꼬리의 물고기가 제멋대로 펄떡거리며 뛰는 모습은 **㉤** 넉넉히 눈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 밤이 깊어 구름은 어둡고 하늘이 캄캄하면 사방은 아득하기만 하다. 어촌의 등불은 가물거리는데 배의 지붕에 빛소리는 울어 느리다가 빠르다가 우수수하는 소리가 차갑고도 슬프다. …(중략)… 여름 날 뜨거운 햇빛에 더위가 쏟아질 적엔 버드나무 늘어진 낚시터에 미풍이 불고, 겨울 하늘에 눈이 날릴 때 차가운 강물에서 홀로 낚시를 드리운다. 사계절이 차례로 바뀌건만 어부의 즐거움은 없는 때가 없다. **▶ 공백공이 생각하는 어부 생활의 즐거움** 저 영달에 얽매어 벼슬하는 자는 구차하게 영화에 매달리지만 나는 만나는 대로 편안하다. 빈궁하여 고기 잡이를 하는 자는 구차하게 이익을 계산하지만 나는 스스로 유유자적을 즐긴다. 성공과 실패는 운명에 맡기고, 진퇴도 오직 때를 따를 뿐이다. 부귀 보기를 뜬구름과 같이 하고 공명을 헌신짝 벗어 버리듯 하여, 스스로 세상의 물욕 밖에서 방랑하는 것이니, 어찌 시세에 영합하여 이름을 낚시질하고, 벼슬길에 빠져 들어 생명을 가볍게 여기며 이익만 취하다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자와 같겠는가. **㉦** 이것이 내가 몸은 벼슬을 하면서도 뜻은 강호에 두어 매양 노래에 의탁하는 것이니,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내가 듣고 즐거워하며 그대로 기록하여 백공에게 보내고, 또한 나 자신도 살피고자 한다. 을축년 7월 어느 날.

▶ 공백공의 말을 글로 남김.

- 권근, 「어촌기」

● 성사 : 옛날 장군이 타고 하늘에 다녀왔다고 하는 배.

## 작품 핵심

### 나 권근, 「어촌기」

① 글쓰기 □□의 삶을 지향하는 공백공을 바라보는 '나'

② 정서와 태도 □□ 속에서 풍류를 즐기고 싶어하는 벗의 생각에 공감함.

### ③ 표현법

- 공백공의 말을 직접 □□하여 그의 □□□을 드러내고 있음.
-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생동감 넘치는 자연 속의 삶을 표현함.
- 대조, 비유, 대구, 설의 등 다양한 표현법을 활용하여 인물의 삶의 태도를 나타냄.

④ 주제 □□에 머물며 자유롭게 사는 삶의 즐거움

## 【참고】

「어촌기」 뒤에 후기를 쓴다.

어촌을 살펴보니, 공부의 호다.

가원 권근이 공백공을 위하여 기문을 지었는데 눈에 보이듯이 뚜렷하게 어촌 공부를 묘사하였다. 백공이 조정에서 벼슬하는 선비인데도 어촌이라 호를 쓴 것은, 그가 즐기는 것을 표현하여 기록한 것이다.

백공은 마음으로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또 성음에 나타내어 매번 술에 취하면 어부사를 노래하니 공상도 아니요, 울려도 아니지만, 높

고 낮은 것이 상응하고 곡조가 조화를 이루니, 이는 아마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일 것이다.

대체로 보아 어촌을 즐기는 자는 백공이요, 백공의 즐거움을 즐거워하는 자는 가원인데, 도전은 백공의 어부사를 듣고 가원의 「어촌기」를 읽으면 찬찬하고 여유가 있어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니, 나는 능히 두 사람의 즐거워하는 바를 즐거워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정도전, 「제어촌기후」

**작품 핵심 빠르게 보기**

**가 신계영, 「월선헌십육경가」**

**작품 해설**

이 작품은 조선 후기의 문신 신계영이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충청남도 예산군 신암)으로 내려와 자신의 집인 '월선헌'에 살면서 열여섯 곳의 자연 풍광을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창작한 은일 가사이다. 서사에서는 고향으로 돌아온 소회를, 본사에서는 고향 주변 열여섯 곳의 아름다운 풍광을 계절의 변화에 따라 그리며 전원생활에서 느끼는 재미와 풍요로운 전원생활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또한, 결사에서는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며 작품을 마무리하고 있다.

**작품 핵심**

① 시적 화자	'월선헌'에서 자연 경치를 즐기는 나
② 정서와 태도	사계절 자연의 아름다움과 탈속의 한가로운 정서를 즐김.
③ 표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li> <li>• 자연에서도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유교적 충의 사상을 담고 있음.</li> <li>•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가을의 풍요로움을 표현함.</li> </ul>
④ 주제	자연을 즐기며 살아가는 <b>전원생활</b> 의 즐거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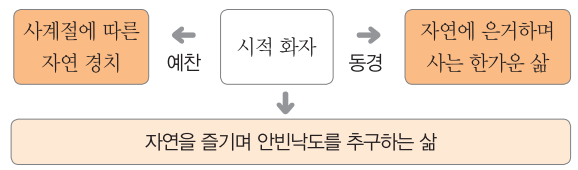
**현대어 풀이**

동쪽 언덕 밖에 크고 넓은 들판에  
누렇게 익은 벼들이 한 빛이 되었다.  
중양절(음 9월 9일)이 가깝구나, 고기잡이 하자구나.  
붉은 게 여물고, 누런 닭이 살찼으니,  
술이 익었으니 벗이나 없겠느냐.  
전원생활의 흥이 나날이 깊어 가는구나.  
개울가 긴 모래밭에 밤 불이 밝혔으니,  
게 잡는 아이들이 그물을 흠어 놓고  
호두포구 먼 물줄기에 밀물이 밀려오니  
뚝단배의 어부가 부르는 뱃노래가 고기 파는 장사로다.  
경지도 좋거니와 생활이야 피로우랴?

(중략)

아아, 이 맑은 경치 값이 있을 것이라면  
적막하게 닫은 문에 내 분수에 맞게 들어오랴  
치우치게 비치는 달빛이 없다 함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검소한 초가집에 비친 빛이 옥무라고 다르겠는가?  
술동이를 바삐 열고 큰 잔에 가득 부어  
죽엽주 맑은 술을 달빛 따라 기울이니  
가볍고도 한가로운 흥취가 잘하면 날아가겠구나.  
이백이 이려하여 달을 보고 미치게 되었구나.  
봄, 여름 가을 겨울 경치가 아름답고  
낮 밤 아침 저녁에 경치를 즐겨 구경하는 것이 새로우니  
몸은 한가하나 귀와 눈은 실 틈이 없구나.  
남은 생애가 얼마일까 백발이 날로 길어가니  
세상의 공명이 계륜과 다르겠는가?  
자연에서 물고기와 새와 맺은 맹세가 깊었으니  
조정의 관직 생활은 꿈속의 녀트로 섞이었다.  
초가집의 달빛 아래에 아무 생각 없이 누워 있으니  
마을의 술과 물고기를 안주로 하여 종일 취하기를 바라노라  
이 몸이 이렇게 지내는 것도 임금님의 은혜이시도다.

**안컷 정리**



**나 권근, 「어촌기」**

**작품 해설**

이 작품에서 '어촌'은 공백공의 호로, 권근이 그의 호를 제목으로 삼아서 기록한 것이다. 비록 몸은 나랏일에 매여 있지만, 강호에서의 삶을 동경하는 공백공의 의중과 포부를 권근이 그의 말을 빌려 전달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공백공은 벼슬에 연연하지 않고 자연 속에서 사는 어부의 삶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모습에서 번속한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강호에 묻혀 살고 싶은 신흥 사대부의 풍류를 엿볼 수 있다.

**작품 핵심**

① 글쓴이	어부의 삶을 지향하는 공백공을 바라보는 '나'
② 정서와 태도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고 싶어하는 벗의 생각에 공감함.
③ 표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백공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그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음.</li> <li>•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생동감 넘치는 자연 속의 삶을 표현함.</li> <li>• 대조, 비유, 대구, 설의 등 다양한 표현법을 활용하여 인물의 삶의 태도를 나타냄.</li> </ul>
④ 주제	강호에 머물며 자유롭게 사는 삶의 즐거움

**안컷 정리**

기	공백공의 인품, 능력, 자연관 등을 소개함.
승	공백공이 생각하는 어부 생활의 즐거움
전	강호에 뜻을 둔 생활의 의의
결	강호에 머물며 살기를 원하는 공백공의 이야기를 글로 기록함.

01

작품의 종합적 감상

정답 ②

선지 선택률	①	②	③	④	⑤
	2%	63%	30%	2%	3%

발문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에는 전원에서의 생활상이, ㉡에는 자연과 동화되는 삶이 나타난다.

오답 ㉠에는 계를 잡는 아이들이 그물을 하고 있는 가을날 전원의 풍경이 나타나 있으며, ㉡에는 공백공이 갈매기와 백로를 벗으로 생각하며 함께 자연을 즐기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자연에 동화된 삶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에는 한가로운 자연 속 흥취가, ㉣에는 고독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나타난다.

정답 (나)에서 공백공은 자연 속에서 사는 어부의 삶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낚싯대를 잡고 혼자 노를 저어 조류에 따라 강물을 오르고 내리다가 모래가 깨끗하면 뱃줄을 매어 두고, 산이 좋으면 강 가운데로 흘러 들어가 경치를 감상한다고 하였다. 이는 공백공이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며 살아가는 삶을 즐기고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은 자연에 동화되어 유유자적하는 공백공의 모습으로 삶의 고독을 해소하려는 의지와는 관련이 없다.

㉤에는 자연현상에서 연상된 그리움의 대상이, ㉥에는 배의 움직임에 따른 청아한 풍경이 나타난다.

오답 (가)의 ㉤에서 화자는 자신이 있는 검소한 초가집에 비친 빛이 임금이 계신 옥루도 비추고 있을 것이라 말하며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다. ㉥에서 공백공은 자신이 탄 배가 흰 물결을 일으키고 달빛을 헤치고 나가면 마치 하늘에 오르는 것과 같다고 말하며 맑고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나타내고 있다.

㉡에는 운치 있는 풍류의 상황이, ㉣에는 자연에서 누리는 흥겨운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

오답 ㉡에서 화자는 술을 마시려고 잔을 기울이는 모습을 술잔에 비쳐 있는 달빛을 기울인다고 표현하며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운치 있게 나타내고 있다. ㉣은 공백공이 어부 생활의 즐거움 중 하나를 말하는 것으로, 벗과 함께 구운 고기와 생선회를 안주로 삼아 술을 마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에는 변화하는 자연에서 얻는 즐거움이, ㉤에는 생동감 넘치는 자연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나타난다.

오답 ㉢에서 화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경치가 아름답고 낮, 밤, 아침, 저녁에 자연을 완상하는 즐거움이 새롭게 느껴져서 몸은 한가하지만, 귀와 눈이 바쁘다면서 변화하는 자연을 완상하는 즐거움을 나타내고 있다. ㉤에서 공백공은 그물을 건어 올릴 때 금빛과 같은 비늘과 옥같이 흰 꼬리를 가진 물고기가 펄떡거리는 모습이 눈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말해 생동감 넘치는 자연의 모습을 표현하여 그 안에서 느끼는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샘 특강

'옥루'가 임금 계신 곳을 관습적으로 이른다든 점을 알고 있지 않으면 ㉢에 대한 오판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문제이다. 이는 고전 시가 주요 작품들에 대한 학습이 선행되었을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이 사실을 몰랐다 할지라도 지문의 마지막 행인 '역군은 이 샷다'와 연관을 지어서, 연군의 감정이 밑바탕에 깔린 정서 중 하나라는 점을 놓치지 않았어야 한다.

02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⑤

선지 선택률	①	②	③	④	⑤
	2%	6%	3%	3%	86%

발문 <보기>를 바탕으로 [A]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17세기 가사 「월선헌십육경가는 월선헌 주변의 16경관을 그린 작품으로 자연에서의 유유자적한 삶을 읊으면서도 현실적 생활 공간으로서의 전원에 새롭게 관심을 두었다. 그에 따라 생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풍요로운 결실, 여유로운 놀이 장면, 그리고 생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정서 등을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현장감 있게 노래했다.

① 전원생활에서 목격한 풍요로운 결실을 '만경 황운'에 비유해 드러냈군.

오답 '만경 황운'은 '만 이량이나 되는 넓은 논이 황색 구름'이라는 뜻으로 '누렇게 익은 벼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화자는 가을날 추수를 앞둔 들판의 모습을 '만경 황운'에 빗대어 전원생활에서 목격한 풍요로운 결실을 드러내고 있다.

② 전원생활 가운데 느끼는 여유를 '내노리 흥자스라'와 같은 청유형 표현을 통해 드러냈군.

오답 화자는 중양절(음력 9월 9일의 옛 명절)이 거의 다 되었으니 '내노리(고기잡이)'를 함께 잡자고 말하고 있다. 이는 가을날 전원생활의 여유로움을 청유형 표현(~하자꾸나)을 통해 드러낸 것이다.

③ 전원생활의 풍족함을 여문 '붉은 게'와 살진 '높은 닭'과 같이 색채 이미지에 담아 드러냈군.

오답 화자는 가을이 되어 붉은 게가 머물고, 누런 닭이 살찐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전원생활의 풍족함을 드러낸 표현이다.

④ 전원생활에서의 현장감을 '밤불이 불가시니'와 '아적들이 미러오니'와 같은 묘사를 활용해 드러냈군.

근거 | 전개(田家) 흥미는 날로 기퍼 가노매라  
살여흘 긴 몰래에 밤불이 불가시니  
게 잡는 아히돌이 그물을 훑터 잇고  
호두포 엔 구빅에 아적들이 미러오니

오답 화자는 밝은 '밤불' 속에서 그물로 계를 잡는 아이들의 모습과 밀려오는 호두포의 모습을 묘사하며 가을날 전원생활의 모습을 현장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전원생활의 여유를 즐기면서도 생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고단함을 '생리라 괴로오라'와 같은 설의적인 표현으로 드러냈군.

정답 화자는 넓은 들판에 누렇게 익은 곡식의 모습, 붉은 계를 잡는 아이들의 모습과 물고기를 파는 어부의 모습 등을 통해 가을날 전원생활의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경(景)도 도커니와 생리(生理)라 괴로오라'는 설의적 표현으로 가을날 전원의 풍경이 경치가 좋을 뿐만 아니라 생활이 괴롭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경치도 좋은 만큼 생활도 즐겁다는 뜻이다. 따라서 '생리라 괴로오라'를 생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고단함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3**

인물의 말하기 방식 파악

정답 ①

선지 선택률	①	②	③	④	⑤
	88%	1%	2%	6%	3%

**발문** (나)의 '공백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시간<sup>○</sup>에 따른 공간의 다채로운 모습<sup>○</sup>을 제시하며 자신의 감정<sup>○</sup>을 드러내고 있다.

| 근거 | 아이와 어른들을 데리고 갈매기와 백로를 벗으며 어떤 때는 낚시대를 잡고, 외로운 배를 노 저어 조류를 따라 오르고 내리면서 가는 대로 맡겨 두고, 모래가 깨끗하면 뱃줄을 매어 두고 산이 좋으면 그 가운데를 흘러간다.  
밤이 깊어 구름은 어둡고 하늘이 캄캄하면 사방은 아득하기만 하다. 어촌의 등불은 기울거리는데 배의 지붕에 빗소리는 울어 느리다가 빠르다가 우수수 하는 소리가 차갑고도 슬프다. (중략)  
여름날 뜨거운 햇빛에 더위가 쏟아질 적엔 버드나무 늘어선 냇수에 미풍이 불고, 겨울 하늘에 눈이 날릴 때면 차가운 강물에서 홀로 낚시를 드리운다. 사계절이 차례로 바뀌건만 어부의 즐거움은 없는 때가 없다.

**정답** 공백공은 낮과 저녁, 깊은 밤, 그리고 여름날과 겨울날의 강물의 풍경의 모습을 제시하며 자연과 함께 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② 상대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함을 언급하여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 있다.

**오답** 공백공은 '나의 뜻은 어부(漁父)에 있다.'라는 말과 함께 자연과 함께 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을 뿐, '나'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 또한, 어부 생활의 즐거움과 강호에서의 삶을 살고 싶다는 뜻을 밝힐 뿐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것과도 관련이 없다.

③ 상대에 대해 심리적 거리감을 느껴 자신의 생각 표현을 자제하고 있다.

| 근거 | 강의 연기가 자욱하고 짙은 안개가 내리면, 도롱이와 삿갓을 걸치고 그물을 건어 올리면 금빛 같은 비늘과 옥같이 흰 꼬리의 물고기가 제 멋대로 펄떡거리며 뛰는 모습은 넉넉히 눈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  
어부의 즐거움은 때가 없다.

**오답** 공백공은 '~즐겁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 '어부의 즐거움은 때가 없다' 등과 같이 자연에서 지내는 삶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후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나'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묻고 있다. 따라서 공백공이 대화의 상대인 '나'에게 심리적 거리감을 느껴 자신의 생각에 대한 표현을 자제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질문에 답변하며 현실에 대처하는 자신의 태도를 밝히고 있다.

**오답** 공백공은 강호에 뜻을 두고 노래에 의탁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나'에게 묻고 있을 뿐, 질문에 답을 하고 있지는 않다.

⑤ 대상과 관련된 행위를 열거하며 자신의 무력감을 깨닫고 있다.

**오답** 공백공은 자연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행위를 시간에 따라 제시하며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을 뿐, 자신의 무력감을 깨닫고 있지는 않다.

**04**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③

선지 선택률	①	②	③	④	⑤
	2%	2%	90%	2%	4%

**발문** <보기>를 활용하여 (나)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어촌기」의 작가는 벗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작가는 벗<sup>○</sup>에 관한 이야기<sup>○</sup>가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근거를 벗과의 관계와 그의 성품에 대한 평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을 드러내며 벗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다.

① 벗이 '영화와 '이익'을 중시하는 삶을 거부한다는 것을 통해 벗의 가치관을 알 수 있<sup>○</sup>군.

| 근거 | 저 영달에 얽매어 벼슬하는 자는 구차하게 영화에 매달리지만 나는 만나는 대로 편안하다. 빈궁하여 고기잡이를 하는 자는 구차하게 이익을 계산하지만 나는 스스로 유유자적<sup>○</sup>을 즐긴다. 성공과 실패는 운명에 맡기고, 진퇴도 오직 때를 따를 뿐이다. 부귀 보기를 뜬구름과 같이 하고 공명을 헌신짝 벗어 버리듯하여, 스스로 세상의 물욕 밖에서 방랑하는 것이니, 어찌 시세에 영합하여 이름을 낚시질하고, 벼슬 길에 빠져들어 생명을 가볍게 여기며 이익만 취하다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자와 같겠는가.

**오답** 공백공은 영달에 얽매어 벼슬하는 자와 달리 영화에 매달리지 않고 편안함을 추구하며, 빈궁하여 고기잡이하는 자와 달리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유유자적을 즐긴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공백공이 공명을 가볍게 여기고 자연과 함께 하는 삶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작가가 벗의 말을 '즐거워하며' 자신도 살피려 하는 것을 통해 작가는 벗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sup>○</sup>군.

| 근거 | 이것이 내가 몸을 벼슬을 하면서도 뜻은 강호에 두어 매양 노래에 의탁하는 것이니,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내가 듣고 즐거워하며 그대로 기록하여 백공에게 보내고, 또한 나 자신도 살피고자 한다.

**오답** 작가는 자신이 공백공의 말을 기록한 것이 공백공의 말을 듣고 즐거움을 느꼈기 때문이라 밝힌 후, 작가 자신의 삶도 살피려보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작가의 말을 통해 작가가 공백공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작가가 벗을 '아우'로 삼고 있다는 것을 통해 벗이 추구하는 삶의 자세가 작가로부터 전해 받은 것임을 알 수 있<sup>○</sup>군.

**정답** 작가는 글의 서두에 공백공이 자신과 태어난 해는 같으나 생일이 늦어서 그를 아우라고 부르게 되었음을 언급하고, 공백공의 말을 듣고 즐거움을 느껴 그 말을 기록하여 공백공에게 보낸 후, 작가 자신의 삶도 살피려보려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로 볼 때 공백공이 추구하는 삶은 그의 사욕 없는 마음과 사물을 초탈한 삶의 자세에서 비롯된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백공이 추구하는 삶의 자세가 작가로부터 전해 받은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벗이 '강태공'과 '엄자릉'을 들어 '내가 감히'라는 말을 언급한 것을 통해 그들의 삶에 미치지 못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벗의 겸손한 성품을 알 수 있<sup>○</sup>군.

| 근거 | 강태공은 성인이니 내가 감히 그가 주 문왕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만남을 기억할 수 없다. 엄자릉은 현인이니 내가 감히 그의 깨끗함을 버랄 수는 없다.

**오답** 공백공은 강태공이 성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강태공과 주 문왕이 만난 것과

같은 만남을 기약할 수 없으며, 엄지릉은 현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엄지릉의 깨끗함을 바랄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공백공이 겸손한 성품을 지닌 인물임을 의미한다.

- ⑤ 작가가 벗이 '대과에 급제'하여 기대를 받고 있는데도 '마음에 사욕이 없'다고 평한 것을 통해 벗의 말이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감을 알 수 있군.

| 근거 | 대과에 급제하고 좋은 벼슬에 올라, 갓끈을 나부끼고 인끈을 두르고 필기를 위한 붓을 귀에 꽂고 나라의 옥새를 주관하니, 사람들은 진실로 그에게 원대한 기대를 하였으나, 담담하게 강호의 취미를 지니고 있다. 가끔 흥이 무르익으면, 어부사를 노래한다. 그 음성이 맑고 밝아서 천지에 가득 찰 것 같다. 중자가 상송(商頌)을 노래하는 것을 듣는 듯하여, 사람의 가슴으로 하여금 멀리 강호에 있는 것 같게 만든다. 이것은 그의 마음에 사욕이 없어 사물에 초탈하였기 때문에 소리의 나타남이 이와 같은 것이다.

○ 오답 작가는 공백공이 대과에 급제하여 좋은 벼슬에 올라 나라의 옥새를 주관하는 관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사욕이 없어 사물에 초탈한 인물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성품으로 인해 그의 음성은 맑고 밝아 천지에 가득 찰 듯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멀리 강호에 있는 것 같게 만든다고 평가하고 있다. 공백공에 대한 이러한 작가의 평가는 공백공의 말이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작가의 생각이 반영된 것에 해당한다.

**샘 특강** <보기>의 주요 내용들을 작품에 적용해서 그 적절성을 판단해 보는 문제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은 이 문제의 선지 ③처럼 근거 없이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한 진술을 매력적인 오답으로 만들어 정답으로 여기게 하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각 선지와 같은 진술들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지문 속에서 발견되는지를 면밀히 판단해 볼 수 있어야 한다.

05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 ①
	선지 선택률	① 80%	② 2%	③ 10%	④ 3%	⑤ 5%

**발문** ㉠~㉤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내가 '강호'에서의 은거를 긍정하지만 정치 현실에 미련이 있음은, ㉡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에 몸담고 있지만 '강호'에 은거하려는 지향을 나타낸다.

○ 정답 ㉠에서 화자는 '강호 어조' 즉, 자연에서 함께 지낼 물고기와 새에게 한 맹세가 깊지만, 관직 생활에 대한 꿈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가 강호에서의 은거를 긍정하면서도 정치 현실에 대한 미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에서 공백공은 자신의 꿈은 비록 관직에 있지만, 뜻은 강호에 두고 노래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백공이 강호에 은거하려는 지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은 '내가 '강호'에서의 은거를 마치고 정치 현실로 복귀하려는 의지를, ㉡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에서 신뢰를 잃어 '강호'에 은거하려는 소망을 나타낸다.

○ 오답 ㉠에서 화자가 정치에 미련이 있음은 드러나지만, 정치 현실로 복귀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에서 공백공은 강호에 은거하려는 지향을 드러낼 뿐, 그 이유가 정치 현실에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인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③ ㉠은 '내가 '강호'에서 경치를 완상하며 정치 현실의 번뇌를 해소하려는 자세를, ㉡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과 갈등하여 '강호'에 은거하려는 자세를 나타낸다.

○ 오답 ㉠에서 화자는 정치 현실에 대한 미련을 드러내고 있을 뿐, 경치를 완상하며 정치 현실의 번뇌를 해소하려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에서 공백공이 정치 현실과의 갈등으로 인해 강호에 은거하려 한다는 점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은 '내가 '강호'에서 늙어 감에 체념하면서도 정치 현실을 지향함은, ㉡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을 외면하면서 '강호'에 은거하려는 염원을 나타낸다.

○ 오답 ㉠에서 화자는 현재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는 있지만, 늙음으로 인해 정치 현실을 체념한다는 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에서 공백공이 정치 현실을 외면하면서 강호에 은거하려 한다는 점 또한 나타나지 않는다.

⑤ ㉠은 '내가 '강호'에서 임금께 맹세하며 정치 현실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태도를, ㉡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의 폐단에 실망하며 '강호'에 은거하려는 희망을 나타낸다.

○ 오답 ㉠에서 화자는 현재 자연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이 임금의 은혜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정치 현실의 이상 실현을 위해 임금께 맹세하는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에서 공백공이 정치 현실의 폐단에 실망하여 강호에 은거하려는 희망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 역시 나타나지 않는다.



# 자전거 도둑

한 평도 채 안 되는 구멍가게는 중풍으로 쓰러져 정상적 건강 상태가 아니었던 아버지의 유일한 수입원이자 생존 이유였다. 때문에 ㉠ 그 구멍가게에 대한 아버지의 몰두와 자존심은 각별했다.

한번은 내가 아버지가 가게를 잠깐 비운 사이에 곁에 허연 인공 설탕 가루를 묻힌 '미키대장군'이라는 캐러멜을 하나 아무 생각 없이 넣름 집어먹은 적이 있었다. 하나에 이 원, 다섯 개에 십 원이었다. 잠시 뒤에 돌아온 아버지는 단박에 그 사실을 알아채고는 불같이 화를 내며 내 목덜미에 당수를 한 대 세계 내려놓는 것이었다. 그 캐러멜 갑 안에 미키대장군이 몇 개 들어 있는지조차 헤히 꿰차고 있는 아버지였다.

—「이런 민한 중간나래! 암생이처럼 기러케 쓸라닥질을 허자면 이 가게 안에 뭐이가 하나 제대로 남아나 겐니, 응?」 「: 이들의 울지 못한 행동을 교육하는 아버지. 사투리의 사용 생동감과 현장감을 줌

그리고 나서는 좀 머쓱했는지 입이 한 발췌 튀어나와 뽀로통해서 서 있는 내게 미키대장군 네 개를 집어 내미는 거였다. 어차피 짝이 맞아야 파니까니, 하면서 억지로 내 손아귀에 쥐어주었다. ㉡ 나는 그 무허가 불량 식품인 캐러멜 네 개가 끈끈하게 녹아내릴 때까지 먹지 않고 췌 쳐 서 있었다.

— 뉘름 털어 넣지 못하겠니, 응? ▶ 수입원이자 생존의 이유였던 구멍가게에 대한 아버지의 애착

목덜미에 아버지의 가벼운 당수를 한 대 더 얹은 다음에야 한입에 털어 넣고 돌아서 나왔다. 아버지도 가게 일을 수월하게 보려면 잔심부름꾼인 나를 무시하고는 아쉬울 때가 많을 터였다. 워낙 짧은 밀천으로 가게를 꾸려 가자니 아버지는 물건 구색을 맞추느라 하루에도 많을 때는 세 번까지 시장통 도매상으로 정부미 포대를 거머쥐고 종종걸음을 쳐야 했고, 막내인 나는 번번이 아버지의 뒤로 팔을 늘어뜨린 채 졸졸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땠 그뵈 죽도록 싫었다. 하마 시장통에서 야구 글러브를 끼거나 조립용 신히 무기 장난감 상자를 든 반 친구를 만나거나, 심지어 과외나 주산 학원을 가는 여자 아이들을 만나는 날에는 정말 그 자리에서 혀를 빼물고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 자신의 처지를 참피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 시장에서 아버지를 도와야 했던 어린 시절의 '나'

(중략)

어느 날이었다. 아버지와 나는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그 정부미 자루를 날라 왔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 한숨을 돌린 뒤 자루를 풀고 물건을 정리해 보니 스무 병이 와야 할 소주가 두 병이 모자란 채 열여덟 병만 온 것이었다.

㉢ 아버지의 얼굴은 맞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급세 하얗게 질렸다. 왜냐하면 그 덜 온 두 병을 빼고 나면 나머지 것들을 몽땅 팔아 봤자 결국 본전치기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내 등을 떼밀어 물건을 받아 온 수도상회의 흑부리 영감한테 내려 보냈다. 아버지는 말주변도 말주변이었지만 중풍 후유증 때문에 약간의 언어 장애가 있어 일부러 나를 보냈던 것이다.

— 뉘름 하러 왔네?

가게 안에 북적거리는 손님들에게 썸을 치러 주느라 몇 번이고 주판알을 고르는 데 바쁜 흑부리 영감의 눈길을 잡아 두는 데 성공한 나는 더듬더듬 자초지종을 말했다. 그러나 「뉘름에 연필을 췌은 채 심술이 덕지 덕지 모여 이뤄진 듯한 왼쪽 이마뺨의 눈갈사탕만 한 흑을 어루만지며 듣던 ㉣ 흑부리 영감은 풍기 때문에 왼쪽으로 험곳 돌아간 두터운 입술을 떠들쳐 굵은 침방울을 내 얼굴에 마구 튀겼다. 애초 자기 눈앞에서 까 보이지 않은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막무가내였다. 나중엔 아버지까지 함께 내려가서 하소연을 해 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정 그렇게 우기면 거래를 끊겠다는 협박성 경고뿐이었다. 거래가 끊긴다면 아버지한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 탐욕스럽고 인색한 흑부리 영감의 부정적인 성격을 기형적인 외모 묘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함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음  
물품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 흑부리 영감에게 췌게 얻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  
흑부리 영감은 아버지한테 무슨 큰 특혜를 내려 주듯이 거래를 터 준다고 허락을 놓았었다. 같은 함경도 동향이기 때문이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하긴 흑부리 영감한테는 매번 소주 열 병 안쪽에다 새우깡 열 봉지, 껌 대여섯 개, 빵 예닐곱 개 등 일반 소매가격 구매자보다 더 많은 물건을 떼어 가지도 않으면서 부득부득

## 작품 핵심 스스로 찾기

※ 스스로 작품의 핵심을 찾는 훈련을 한 후에 '빠르게 보기'에서 확인하세요.

### 김소진, 「자전거 도둑」

1 성격 회상적, 사실적

2 배경

- 시간: [현재] 1990년대  
[과거] 두 인물의 유년기
- 공간: [현재] 서울 주변의 신도시  
[과거] 두 인물의 고향

3 시점 1인칭  시점

4 표현법

- 각기 다른 세 개의 이야기(나의 사연, 서미혜의 사연, 영화)가 중첩되면서 사건이 진행됨.
- 현재 - 과거 - 현재로 이어지면서 에 겪었던 내면의 상처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됨.

5 주제  시절의 상처와 삶의 쓸쓸함.

도맷값으로 해 달라고 통사정을 해 쌓는 아버지 같은 사람 하나쯤 거래를 끊어도 장부상 거의 표가 나지 않을 것이었다.

결국 아버지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㉔ 당신의 자그마한 구멍가게로 돌아와 나머지 열여덟 병의 소주를 낫 나간 사람처럼 쓰다듬던 아버지는 기어코 아들인 내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했다.  
자신의 실수로 인한 안타까움의 표현  
아! 아버지…….

▶ 소주병 두 병 때문에 눈물을 보였던 아버지

— 김소진 「자전거 도둑」

## 작품 핵심

### 등장인물

- 아버지 :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소심한 성격임. 지독한 가난 속에서 자식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인물
- 나 : 어린 적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지닌 인물
- 흑부리 영감 : 아버지와 같은 함경도 출신으로 계산적이고 인정이 없는 인물

### 전체 줄거리

신문 기자인 주인공 김승호와 그의 자전거를 몰래 훔쳐 타는 동네 에어로빅 강사 서미혜의 이야기를 이탈리아 영화감독인 비토리오 테시카의 영화 『자전거 도둑』과 연관시켜 그려 낸 소설이다. 영화 『자전거 도둑』은 이차대전이 끝나고 폐허로 변한 로마를 배경으로 주인공 안토니오와 그의 아들 브루노의 이야기를 담아낸 작품이다. 어렵게 포스터 붙이는 일을 구하게 된 안토니오는 그 일을 위해 아내의 헌 옷가지를 담보로 구한 자전거를 도둑맞는다. 결국 자전거를 되찾지 못한 안토니오는 남의 자전거를 훔치다 붙잡히고, 온갖 멸시와 모욕을 받다가 풀려난다.

아들 브루노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데, 김승호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자신의 처지와 영화 속의 브루노를 동일시한다. 과거 김승호의 아버지는 수도상회의 ‘흑부리 영감’에게 물건을 받아 오는 과정에서 소주 스무 병 값을 치르고서 열여덟 병만 들고 오는 실수를 한다. 김승호는 그런 아버지 대신 흑부리 영감에게 사정을 얘기하려 하지만 흑부리 영감은 그런 사정을 감안해 주지 않았고, 결국 닷새쯤 지나 다시 수도상회에 물건을 떼러 간 아버지는 몰래 소주 두 병을 더 담았다가 발각당한다.

어린 김승호는 흑부리 영감에게 그것이 자신의 짓이라 거짓말을 하고, 용서해 주는 대신 아들을 호되게 가르치는 모습을 보이라는 흑부리 영감의 말을 들은 아버지에게 따귀를 얻어맞는다. 그로 인해 주인공은 어린 나이에 “애비라는 존재는 되지 말자.”고 결심한다. 이런 김승호와 서미혜는 영화 『자전거 도둑』을 함께 보며 서로의 과거를 공유하게 된다.

어린 김승호는 어두운 밤 수도상회에 몰래 들어가 난장판을 만드는 것으로 ‘복수’를 하고, 그로 인한 충격으로 흑부리 영감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다. 서미혜도 어린 시절 간질로 인해 성장이 멈춘 오빠가 자신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일을 계기로 엄마가 고향에 내려간 사이 오빠를 방치해 두어 굶어 죽게 만든 일이 있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은 김승호는 서미혜를 멀리 하게 되고, 서미혜가 다른 자전거를 훔치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고는 자리를 피해 버린다. 작중에서 김승호가 무능한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해 자신이 ‘복수’를 감행한 반면, 서미혜의 경우에는 무능한 오빠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일에 대한 자기 위안으로 남의 자전거를 몰래 타게 된 것이다. 작가는 이러한 대비를 통해서 유년기의 상처와 그 극복이라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작품 핵심 빠르게 보기**

**김소진, 「자전거 도둑」**

**작품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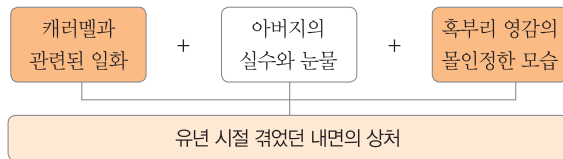
이 작품에서 '나'는 어린 시절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추레한 아버지에 대해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 작가는 회상을 서술하는 방식을 통해 성인이 된 후에도 유년 시절에 얻은 내면의 상처를 기억하고 있는 나의 과거를 드러내며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나'는 캐러멜과 관련된 일화를 떠올리며 한 평도 채 안 되는 구멍가게에 대한 아버지의 애착과 자신에 대한 사랑을 회상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흑부리 영감'에게 물건을 받아 오는 과정에서 소주 스무 병값을 치르고서 열여덟 병만 들고 오는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흑부리 영감을 찾아가는 사건과 그 과정에서 알게 된 흑부리 영감의 몰인정한 모습, 아버지의 애처로운 모습 등을 떠올리며 유년 시절 자신이 겪었던 내면의 상처를 그려 내고 있다.

**작품 핵심**

① 성격	회상적, 사실적
② 배경	• 시간 : [현재] 1990년대 [과거] 두 인물의 유년기 • 공간 : [현재] 서울 주변의 신도시 [과거] 두 인물의 고향
③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④ 표현법	• 각기 다른 세 개의 이야기(나의 사연, 서미혜의 사연, 영화)가 중첩되면서 사건이 진행된다. • 현재-과거-현재로 이어지면서 유년기에 겪었던 내면의 상처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됨.
⑤ 주제	유년 시절의 상처와 삶의 쓸쓸함.

**인컷 정리**



**제목의 의미**

「자전거 도둑」에서 도둑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가해자이다. 하지만 이 글에 나타난 도둑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환경적 피해자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자전거 도둑은 사회적 약자들의 슬픈 자화상인 셈이다. 즉 자전거 도둑이란 불행한 시대에 소외받는 민중들의 아픔과 상처에 대한 일종의 대우라 할 수 있다.

06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 ①
	선지 선택률	① 94%	② 1%	③ 2%	④ 1%	⑤ 1%

**발문**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흑부리 영감의 위협적인 경고 때문에, 아버지는 흑부리 영감의 주장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정답** 이 글에서 아버지는 흑부리 영감에게 물건을 받아 오면서 소주 스무 병값을 치르고 열여덟 병만 들고 오는 실수를 한다. '나'와 아버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흑부리 영감을 찾아가 사건의 자초지종을 설명한다. 그러나 흑부리 영감은 막무가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며, '정 그렇게 우기면 거래를 끊겠다는 협박성 경고'까지 하게 된다. 이에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가게로 돌아와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다. 이를 통해 아버지가 흑부리 영감의 주장을 따를 수밖에 없는 까닭이 그의 위협적인 경고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 아버지는 소주 두 병을 덜 받아 왔기 때문에 곤란했지만, '나'에게 당황한 내색을 하지 않았다.

**오답** | 근거 | 어느 날이었다. 아버지와 나는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그 정부미 자루를 날라 왔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 한숨을 돌린 뒤 자루를 풀고 물건을 정리해 보니 스무 병이 와야 할 소주가 두 병이 모자란 채 열여덟 병만 온 것이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맞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금세 하얗게 질렸다.

**오답** 스무 병이 와야 할 소주가 열여덟 병만 온 것을 확인한 아버지의 얼굴이 '맞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금세 하얗게 질렸다.'라고 표현한 부분에서 아버지가 당황한 내색을 보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 아버지는 '나'의 잘못을 묵인했지만, 흑부리 영감과 의 잘못된 거래는 바로잡으려 노력했다.

**오답** 구멍 가게에 있던 캐러멜 하나를 아무 생각 없이 집어먹은 '나'의 행동에 대해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며' 당수를 한 대 세계 내리꽂고 혼내는 장면에서 아버지가 '나'의 잘못을 묵인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흑부리 영감은 가게 일로 바빴지만, '나'의 자초지종을 듣고 마지못해 '나'의 염려를 덜어 주었다.

**오답** | 근거 | 가게 안에 북적거리는 손님들에게 썸을 치러 주느라 몇 번이고 주판알을 고르는 데 바쁜 흑부리 영감의 눈길을 잡아 두는 데 성공한 나는 더듬더듬 자초지종을 말했다. 그러나 컷등에 연필을 꽂은 채 심술이 덕지덕지 모여 이뤄진 듯한 왼쪽 이마뿔의 눈갈 사방만 한 흑을 어루만지며 듣던 흑부리 영감은 풍기 때문에 왼쪽으로 힐끗 돌아간 두터운 입술을 떠들쳐 굵은 침방울을 내 얼굴에 마구 튀겼다. 애초 자기 눈앞에서 까 보이지 않은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막무가내였다. 나중엔 아버지까지 함께 내려가서 하소연을 해 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정 그렇게 우기면 거래를 끊겠다는 협박성 경고뿐이었다.

**오답** '나'는 아버지의 실수에 관해 흑부리 영감을 찾아가 사건의 자초지종을 설명하였지만, 이야기를 들은 흑부리 영감은 오히려 거래를 끊겠다고 협박을 하였다. 따라서 '나'의 자초지종을 듣고 마지못해 '나'의 염려를 덜어 준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아버지는 '나'의 도움이 필요했기에, 친구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우울해 하는 '나'를 기분 좋게 하려 노력했다

**오답** 이 글의 '막내인 나는 번번이 아버지의 뒤로 팔을 늘어뜨린 채 줄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땐 그게 죽도록 싫었다.' 등의 표현에서 '나'의 기분과 무관하게 아버지가 '나'를 심부름꾼으로 데리고 다녔음을 추측할 수 있다.

선지 선택률	①	②	③	④	⑤
	2%	2%	1%	5%	90%

**발문**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 평도 채 안 되는 구멍가게를 각별한 애정으로 운영하던 아버지  
 지에 대한 기억은, '나'에게 아버지의 '생존 이유'를 짐작하게 했  
 겠어.

| 근거 | 한 평도 채 안 되는 구멍가게는 중풍으로 쓰러져 정상적 건강 상태가  
 아니었던 아버지의 유일한 수입원이자 생존 이유였다. 때문에 그 구  
 멍가게에 대한 아버지의 몰두와 자존심은 각별했다.  
 한번은 내가 아버지가 가게를 잠깐 비운 사이에 곁에 허연 인공 설탕  
 가루를 묻힌 '미키대장군'이라는 캐러멜을 하나 아무 생각 없이 넣음  
 집어먹은 적이 있었다. 하나에 이 원, 다섯 개에 십 원이었다. 잠시 뒤  
 에 돌아온 아버지는 단박에 그 사실을 알아채고는 불같이 화를 내며  
 내 목덜미에 당수를 한 대 세계 내려 쫓는 것이었다. 그 캐러멜 갑 안에  
 미키대장군이 몇 개 들어 있는지조차 험히 꿰차고 있는 아버지였다.

○ 오답 '나'는 '캐러멜 갑 안에 미키대장군이 몇 개 들어있는지조차 험히 꿰차고 있  
 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한 평도 채 안 되는 구멍가게'에 대한 아버지의 각별한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것이 아버지의 '생존 이유'였음을 짐작하고 있다.

- ② '캐러멜'을 먹었다고 화를 냈다가 남은 '캐러멜'을 '나'의 손에 쥐  
 어 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나'에게 아버지가 속마음을 드러내  
 는 데 서툰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했겠어.

| 근거 | - 이런 민한 중간나래! 양생이처럼 기러게 쓸라닥질을 하자면 이 가  
 게 안에 뭐가 하나 제대로 남아나겠니, 응?  
 그리고 나서는 좀 머쓱했는지 입이 한 발췌 튀어나와 뽀로통해서 서  
 있는 내게 미키대장군 네 개를 집어 내미는 거였다. 어차피 짝이 맞  
 아야 파니까니, 하면서 억지로 내 손아귀에 쥐어 주었다. 나는 그 무  
 허가 불량 식품인 캐러멜 네 개가 끈끈하게 녹아내릴 때까지 먹지 않  
 고 천 채 서 있었다.  
 - 날름 털어 넣지 못하겠니, 으앙?

○ 오답 '나'를 혼내고 나서 보인 아버지의 행동을 보면, 아버지는 '어차피 짝이 맞  
 아야 파니까니'와 같은 이유를 대며, '날름 털어 넣지 못하겠니'라고 권하는 모습에  
 서 '나'에 대한 미안함을 서투르게 표현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 ③ '팔을 늘어뜨린 채' 아버지를 따르던 '나'가 '시장통'에서 '반 친구'  
 를 만났던 경험은, '나'에게 궁핍으로 인한 내면의 상처로 남은  
 기억이겠어.

| 근거 | 워낙 짧은 밀천으로 가게를 꾸려 가자니 아버지는 물건 구색을 맞추  
 느라 하루에도 많을 때는 세 번까지 시장통 도매상으로 정부미 포대  
 를 거머쥐고 종종걸음을 쳐야 했고, 막내인 나는 번번이 아버지의 뒤  
 로 팔을 늘어뜨린 채 졸졸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땐 그제 죽도록 싫었다. 허마 시장통에서 야구 글러브를 끼거나 조  
 림용 신형 무기 장난감 상자를 든 반 친구를 만나거나, 심지어 과외  
 나 주산 학원을 가는 여자 아이들을 만나는 날에는 정말 그 자리에서  
 허를 빼물고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 오답 '나'는 아버지와 기억에 관해 '그땐 그제 죽도록 싫었다.', '정말 그 자리에서  
 허를 빼물고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다.'라고 표현한 것에서 시장에서 어쩔 수 없  
 이 아버지를 도와야 했던 '나'의 유년 시절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난 때문에 어  
 켈 수 없이 심부름을 해야 했던 '나'의 내면의 상처를 추측할 수 있다.

- ④ '중풍 후유증' 때문에 '언어 장애'가 있는 아버지 대신 흑부리 영  
 감을 상대하게 된 경험은, '나'에게 어린 나이에 이해타산적인 어

른들의 세계를 느끼게 한 기억이겠어.

| 근거 | 아버지는 내 등을 때밀어 물건을 받아 온 수도상회의 흑부리 영감한테  
 내려보냈다. 아버지는 말주변도 말주변이었지만 중풍 후유증 때  
 문에 약간의 언어 장애가 있어 일부러 나를 보냈던 것이다.  
 뭐 하러 왔네?  
 가게 안에 북적거리는 손님들에게 셈을 치러 주느라 몇 번이고 주판  
 알을 고르는 데 바쁜 흑부리 영감의 눈길을 잡아 두는 데 성공한 나  
 는 더듬더듬 자초지종을 말했다. 그러나 귓등에 연필을 꽂은 채 심술  
 이 덕지덕지 모여 이뤄진 듯한 왼쪽 이마뿔의 눈갈 사탕만 한 혹은  
 어루만지며 든던 흑부리 영감은 풍기 때문에 왼쪽으로 힐끗 돌아간  
 두터운 입술을 떠들쳐 굵은 침방울을 내 얼굴에 마구 튀겼다. 애초  
 자기 눈앞에서 까 보이지 않은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막무가내였다.  
 나중엔 아버지까지 함께 내려가서 하소연을 해 봤지만 돌아온 대답  
 은 정 그렇게 우기면 거래를 끊겠다는 협박성 경고뿐이었다.

○ 오답 '나'는 아버지가 저지른 실수를 설명하기 위해 아버지를 대신하여 흑부리  
 영감을 찾아가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으나 흑부리 영감은 '나'의 말을  
 무시하였다. 이 글에서 '애초 자기 눈앞에서 까 보이지 않은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막무가내였다.'라는 표현으로 볼 때, 어린 '나'의 눈에 비친 흑부리 영감의 매몰찬  
 태도는 이해타산적인 모습으로 비추어졌을 것이다.

- ⑤ '거래를 끊어도' 표가 나지 않을 사람이었던 아버지와 거래를 끊  
 지 않은 흑부리 영감에 대한 기억은, '나'에게 형편이 어려운 사  
 람들 간의 유대감을 느끼게 했겠어.

○ 정답 흑부리 영감의 입장에서 '아버지 같은 사람 하나쯤 거래를 끊어도 장부상  
 거의 표가 나지 않을 것'인 데 반해, '나'는 '거래가 끊긴다면 아버지한테는 큰 타격  
 이 아닐 수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아버지가 자신의 구멍  
 가게로 돌아와 기어코 눈물을 보이는 모습은 둘 사이의 거래 관계에서 흑부리 영감  
 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나'가 흑부리 영감에 대한 기억을  
 통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8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⑤

선지 선택률	①	②	③	④	⑤
	5%	7%	12%	2%	76%

**발문**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을 감당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이 소설의 서술자인 성인 '나'는 주로 세 가지 서술 방식을 활용한다. 첫째는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나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독자는 서술자의 해석을 통해 사건을 이해하게 된다. 둘째는 서술자가 인물의 외양이나 행위만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독자는 그 묘사가 갖는 의미를 스스로 해석해야 한다. 셋째는 서술자가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유년 '나'의 눈에 보이는 다른 인물의 외양이나 행위를 묘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독자는 사건의 현장을 직접 보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으며, 둘째 방식에서처럼 그 묘사에 대해 해석해야 한다. 셋째 방식에 유년 '나'의 심리가 함께 서술되면 독자는 인물의 심리에 쉽게 공감하게 된다

① ㉠ : 서술자가 아버지의 내면을 설명하여 독자는 서술자의 해석을 통해 상황을 이해하겠군.  
○ → (보기)의 첫째 방식 활용

**오답** ①은 <보기>의 세 가지 서술 방식 중 첫째 방식을 활용한 것이다. '그 구멍가게에 대한 아버지의 몰두와 자존심은 각별했다.'에서 '그 구멍가게에 대한 아버지의 몰두와 자존심'은 서술자가 아버지의 내면을 설명한 것으로 독자는 서술자의 해석을 통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①의 설명은 적절한 감상이다.

② ㉡ : 서술자가 유년 '나'의 행위를 묘사하여 독자는 그 행위가 갖는 의미를 스스로 해석하겠군.  
○ → (보기)의 둘째 방식 활용

**오답** ②은 <보기>의 세 가지 서술 방식 중 둘째 방식을 활용한 것이다. '나는 그 무허가 불량 식품인 캐러멜 세 개가 끈끈하게 녹아내릴 때까지 먹지 않고 썩어 있었다.'라고 묘사하는 장면에서 독자는 유년 시절의 '나'가 '캐러멜 네 개가 끈끈하게 녹아내릴 때까지 먹지 않고' 서 있었던 의미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해석하며 이해해야 하므로 ②의 설명은 적절한 감상이다.

③ ㉢ :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아버지의 내면이 직접적으로 서술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독자라면 아버지의 내면을 스스로 해석하겠군.  
○ → (보기)의 셋째 방식 활용

**오답** '아버지의 얼굴은 맞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금세 하얗게 질렸다.'는 아버지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③을 <보기>의 세 가지 서술 방식 중 셋째 방식으로 본다면, 아버지의 내면이 직접 서술되지는 않았으므로 독자가 아버지의 내면을 스스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④ ㉣ :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혹부리 영감의 모습과 행동을 묘사했다고 생각한 독자라면 장면을 직접 보는 듯한 느낌을 받겠군.  
○ → (보기)의 셋째 방식 활용

**오답** ④을 <보기>의 세 가지 서술 방식 중 셋째 방식으로 본다면, 독자는 혹부리 영감이 '퐁기 때문에 왼쪽으로 힐끗 돌아간 두터운 입술을 떠들쳐' 침을 튀기며 말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감상이다.

ⓧ ⑤ ㉤ :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아버지의 행위와 표정을 묘사하면서 유년 '나'의 심리를 함께 제시하여 독자는 그 심리에 공감하겠군.  
x

**정답** ⑤ '당신의 자그마한 구멍가게로 돌아와 나머지 열여덟 병의 소주를 낫 나간 사람처럼 쓰다듬던 아버지는 기어코 아들인 내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했다.'는 아버지가 자신의 실수에 대해 느끼는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으로, 아버지가 구멍가

게로 돌아와 열여덟 병의 소주를 쓰다듬으며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모습이다. 이는 <보기>에서 설명한 서술 방식 중,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아버지의 행위와 표정을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⑤에서 유년 시절 '나'의 심리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찾아보기 어렵다.

선배들의 해결 TIP

이진욱 | 서울대 미학과 | 복일고등학교 졸업

문학 영역 문제들은 지문을 읽기에 앞서 문항들과 <보기>를 먼저 읽어 보는 걸 추천해. 그러면 어떤 부분을 위주로 지문을 읽어야 할지 미리 알 수 있고, <보기>와 같은 경우는 지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힌트를 주기도 하거든. <보기>는 시점에 따른 서술 방식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보기>에 따르면 서술자가 직접 사건을 해석해 주는 첫째와 달리 둘째와 셋째 서술 방식은 독자가 스스로 묘사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고, 특히 셋째는 사건의 현장감이 높다는 특징이 있어. 이렇게 먼저 <보기>의 내용을 정리하면, 내용이 좀 어렵더라도 쉽게 선지들의 적절성을 파악할 수 있어. ⑤과 같은 경우는 시선을 유년 시절의 '나'로 제한해 아버지의 행위와 표정을 묘사하긴 했지만 유년 시절 '나'의 심리를 제시하지는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아.

# 유씨삼대록

[앞부분 줄거리] 아들 유세기가 부모의 허락 없이 백공과 혼사를 결정했다고 여긴 선생은 유세기를 집에서 내쫓는다.  
유세기의 부모(유우성)

백공이 알,

“혼인은 좋은 일이라 서로 헤아려 잘 생각할 것이니 어찌 **이같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한림의 재모를 아껴 이같이 기별해 사위를 삼고자 하였더니 선생 형제는 도학군자라 예가 아닌 것을 문책하시느도다. 내가 마땅히 곡절을 말하리라.”

이에 백공이 유씨 집안에 이르러 선생 형제를 보고 인사를 하고 나서 혼쾌히 웃으며 가로되,

“제가 두 형과 더불어 죽마고우로 절친하고 또 아드님의 특출함을 아껴 제 딸의 배필로 삼고자 하여, 어제 세기를 보고 여차여차하니 아드님이 단호하게 말하고 돌아가더이다. 제가 더욱 흠모하여 엄치를 잊고 **거짓말로 일을 꾸며 구혼**하면서 ‘정약’이라는 글자 둘을 더했으니 이는 진실로 저의 희롱함이다. 두 형께서 과도히 끝이듣고 아드님을 엄히 꾸짖으셨다 하니, 혼사에 도리어 휘방이 되었으므로 어찌 우습지 않으리까? 원컨대 두 형은 아드님을 용서하여 아드님이 저를 원망하게 하지 마오.”

선생과 승상이 바야흐로 아들의 죄가 없는 줄을 알고 기뻐하면서 사례하여 알,

“저희 자식이 분에 넘치게 **공의 극진한 대우**를 받으니 마땅히 그 후의를 받들 만하되, 이는 선조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가법이 아니기에 감히 재취를 허락하지 못하였소이다. 저희 자식이 방자함이 있나 통탄하였더니 그간 곡절이 이렇듯 있었소이다.”

백공이 화답하고 이윽고 돌아가서 다시 혼사말을 이르지 못하고 딸을 다른 데로 시집보냈다. 선생이 백공을 돌려보낸 후에 **한림**을 불러 앞으로 더욱 행실을 닦을 것을 훈계하자 한림이 절을 하면서 명령을 받들었다. 차후 더욱 예를 삼가고 배우기를 힘써 학문과 도덕이 날로 숙연하고, 소 소저와 더불어 백수해로하면서 여덟 아들, 두 딸을 두고, 집안에 한 명의 첩도 없이 부부 인생 희로를 **유한림의 아내** 요동함이 없더라.

승상의 둘째 아들 세형의 자는 문희이니, 형제 중 가장 빼어났으니 산천의 정기와 일월의 조화를 타고 태어나 아름다운 얼굴은 운택한 옥과 빛나는 봄꽃 같고, 호탕하고 깨끗한 풍채는 용과 호랑이의 기상이 있으며, 성품이 호기롭고 의협심이 강하여 맑고 더러움의 분별을 조금도 잃지 않으니, 부모가 매우 사랑하여 며느리를 널리 구하더라.

▶ 유세기(2대)의 혼인에 얽힌 이야기

(중략)

유세형의 친  
화설, 장 씨 **이화정**에 돌아와 긴 단장을 벗고 난간에 기대어 하늘가를 바라보며 평생 살아갈 계획을 골똘히 헤아리자, 한이 눈썹에 맺히고 슬픔이 마음속에 가득하여 생각하되,

‘내가 재상가의 귀한 몸으로 유생과 백년가약을 맺었으니 마음이 흡족하고 뜻이 즐거울 것이거늘, 천자의 귀함으로 한 부마를 뽑는데 어찌 구태여 나의 아름다운 **남군을 빼앗아 가 위세로써 나로 하여금 공주 저 사람의 아래가 되게 하셨는가?** 도리어 저 사람의 덕을 찬송하고 은혜를 읊어 한없는 영광은 남에게 돌려보내고 구차한 자취는 내 일신에 모이게 되었도다. 우주 사이는 우러러 바라보거나 하려니와 나와 공주의 현격함은 하늘과 땅 같도다. 나의 재주와 용모가 저 사람보다 떨어지는 것이 없고 먼저 혼인 예물까지 받았는데 이처럼 남의 천대를 감심할 줄 어찌 알리오? 공주가 덕을 베풀수록 나의 몸엔 빛이 나지 않으리니 제 짐짓 능활하여 아버님, 어머님이나 시누이를 제 편으로 끌어들이다면 남군의 마음은 이를 좇아 완전히 달라질지라. 슬프다, 나의 앞날은 어이 될고?’

생각이 이에 미치자 북받쳐 오르는 한이 마음속에 가득 쌓이기 시작하니 어찌 좋은 뜻이 나리오? 정히 눈물을 머금고 마음을 붙일 곳 없어하더니, 문득 세형이 보라색 두건과 녹색 도포를 가볍게 나부끼며 이르러 장 씨의 참담한 안색을 보고 옥수를 잡고 어깨를 비스듬히 기대게 하며 물어 알,

“그대 무슨 일로 슬픈 빛이 있나뇨? 나를 좇음을 원망하는가?”

장 씨가 잠시 동안 탄식 왈,

## 작품 핵심 스스로 찾기

※ 스스로 작품의 핵심을 찾는 훈련을 한 후에 '빠르게 보기'에서 확인하세요.

### 작자 미상, 「유씨삼대록」

- ① 성격 비판적, 풍자적
- ② 배경
  - 시간: 중국 명나라
  - 공간:  일가의 가문
- ③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 ④ 표현법
  - 「소현성록」과 더불어 삼대록계 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임.
  - 문제, 부부 문제 등  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됨.
- ⑤ 주제  가문 3대의 이야기

“낭군은 부질없는 말씀 마음소서. 제가 낭군을 좇는 것을 원망했다면 어찌 깊은 규방에서 홀로 늙는 것을 감심하였사오리까? 다만 제가 귀택에 들어온 지 오류일이 지났으나 좌우에 친한 사람이 없고 오직 우리르느 바는 아버님, 어머님과 낭군뿐이라 어린 여자의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바이옵니다. 공주가 위에 계셔 온 집의 권세를 오로지 하시니 그 위와 덕택이 저로 하여금 변변찮은 재주 가진 하졸이 머릿수나 채워 우물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같게 만드옵니다. 제가 감히 항거할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신세가 구차하여 슬프고, 진양궁에 나아가면 궁비와 시녀들이 다 저를 손가락질하며 비웃어 한 가지 일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옵고, 제 입에서 말이 나면 일천여 시녀가 다 제 입을 가리니, 공주의 은덕에 의지하여 겨우 실례를 면하고 돌아왔습니다.”

「부마가 바야흐로 장 씨의 외로움을 가련하게 여기고 공주의 위세가 장 씨를 억누르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고 있다. 장 씨의 이렇듯 애원한 모습을 보자 크게 불쾌하여 장 씨를 위한 애정이 솟는 듯하였다. 은근하고 간곡하게 장 씨를 위로하고 그 절개와 외로움에 감동하여 이날부터 발자취가 **이화정**을 떠나지 않았다. 연리지와 같은 신희의 정은 양왕의 꿈에 빠진 듯 어지럽고, 낙천의 마음이 취한 듯 기쁘고 즐거워 바라다본 **뿌리에서 난 두 나무가 접근하여 그 몸통이 붙어버린 것, 한나라 말 학자였던 채옹의 고사에서 나온 말** 다른 바를 다 얻은 듯한 마음은 세상에 비할 데가 없더라.

**작품 핵심**

**등장인물**

- 유세기 : 백공의 딸과 부모의 동의 없이 혼사를 결정했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났다 이후 오해가 풀림. 이후 첫째 부인과 아들 여덟과 딸 둘을 두고 백년해로 함.
- 유세형 : 유우성의 차남. 장 씨와 약혼했으나 부마로 간택되어 진양 공주와 혼인하게 됨.
- 진양공주 : 마음씨가 착하고 어진 성품을 지님. 유세형과 혼인함.
- 장 씨 : 자신과 약혼했던 유세형이 부마가 됨에 따라 둘째 부인인 첩이 됨. 진양 공주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모해함.

▶ 유세형(3대)의 혼인에 얽힌 이야기  
- 작자 미상, 「유씨삼대록」

**전체 줄거리**

유승상의 맏아들 유세기는 소순의 딸과 혼인하고, 둘째 아들 유세형은 장순의 딸과 약혼을 한다. 하지만 유세형은 자신을 부마로 간택한다는 교서를 받는다. 이에 장 씨와의 약혼했다는 이유로 공주와의 결혼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결국 공주와 혼인하게 된다. 이에 장 소저는 병을 얻게 된다. 유세형과 혼인을 한 공주는 부마가 된 유

세형이 자신과 혼인하기 전에 장 씨와 약혼했던 사실을 알게 되고, 부마의 마음을 헤아려 장 소저를 계비로 봉한다. 하지만 장 씨는 공주를 질투하여 그녀를 모해하고 장 씨의 농간으로 부마 또한 공주를 학대한다. 이후 엄벌을 받은 부마는 잘못을 뉘우치고 가정을 잘 다스리기로 다짐한다.

**작품 핵심 빠르게 보기**

**작자 미상, 「유씨삼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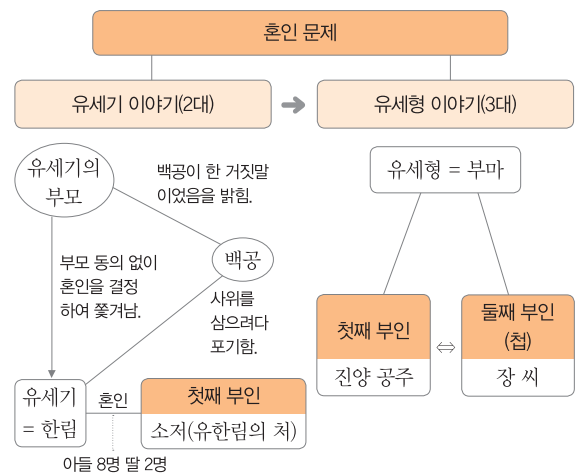
**작품 해설**

이 작품은 「유효공선행록」의 후편으로, 삼대록계 소설의 전형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서 상층 가문의 품격 높은 취향을 반영하고 있는 국문 장편 소설이다. 유씨 가문의 삼대에 걸쳐서 일어나는 사건을 소설화하고 있다.

**작품 핵심**

① 성격	비판적, 풍자적
② 배경	• 시간 : 중국 명나라 • 공간 : 유씨 일가의 가문
③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④ 표현법	• 「소현성록」과 더불어 삼대록계 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임. • 혼사 문제, 부부 문제 등 가정사를 중심으로 이야기 전개됨.
⑤ 주제	유씨 가문 3대의 이야기

**만컷 정리**



09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 ③
	선지 선택률	① 9%	② 4%	③ 76%	④ 7%	

발문 **이같이 좋지 않은 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백공의 거짓말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 근거 | 제가 두 형과 더불어 죽마고우로 절친하고 또 아드님의 특출함을 아껴 제 딸의 배필로 삼고자 하여, 어제 세기를 보고 여차 여차하니 아드님이 단호하게 말하고 돌아가더이다. 제가 더욱 흠모하여 염치를 잊고 거짓말로 일을 꾸며 구훈하면서 '정약'이라는 글자 돌을 더했으니 이는 진실로 저의 희롱함이다. 두 형께서 과도히 곤이듣고 아드님을 엄히 꾸짖으셨다 하니, 혼사에 도리어 훼방이 되었으므로 어찌 우습지 않으리까?

오답 [A]와 [B]는 백공은 '거짓말로 일을 꾸며 구훈하면서 '정약'이라는 글자 돌을 더했다. 이로 인해 한림(유세기)이 꾸지람을 듣고 집에서 내쫓기는 곤욕을 치르게 되었다.

② 백공이 한림을 곤경에 처하게 한 일이다.  
 ○ → 집에서 쫓겨남.  
 오답 백공이 거짓말로 일을 꾸미고 '정약'이라는 글자를 더한 탓에, 선생과 승상은 한림이 부모의 허락 없이 혼사를 결정했다고 여기고 한림을 문책하였다. 따라서 백공이 한림을 곤경에 처하게 한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선생과 승상 사이에서 의견 대립이 심화된 일이다.  
 정답 유세기가 부모의 허락 없이 백공과 혼사를 결정했다고 여긴 선생과 승상(선생 형제는 이 일을 문책하고 유세기를 집에서 내쫓는다. '이같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자 백공이 유씨 집안에 찾아가 궂절을 말하고 선생과 승상은 유세기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이같이 좋지 않은 일'은 유세기가 혼사와 관련하여 곤욕을 치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선생과 승상 사이에서 의견 대립이 심화된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④ 한림이 선생과 승상으로부터 꾸지람을 당한 일이다.  
 오답 선생과 승상은 한림이 부모의 허락 없이 혼사를 결정했다고 생각하여 한림을 엄하게 꾸짖었다.

⑤ 백공이 한림을 자신의 딸과 혼인시키려다 일어난 일이다.  
 | 근거 | 제가 두 형과 더불어 죽마고우로 절친하고 또 아드님의 특출함을 아껴 제 딸의 배필로 삼고자 하여, 어제 세기를 보고 여차 여차하니 아드님이 단호하게 말하고 돌아가더이다.  
 오답 백공이 한림의 재주와 용모의 특출함을 아껴 딸의 배필로 삼으려고 거짓말로 일을 꾸며 혼인시키려다 일어난 일이다. 이 때문에 한림은 꾸지람을 듣고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10	대화의 특징 파악					정답 ④
	선지 선택률	① 2%	② 3%	③ 5%	④ 87%	

발문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와 [B]는 모두 과거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오답 [A]에서는 장 씨가 유세형이 부마로 간택되기 전에 혼인을 하기로 약속하였으나 부마로 뽑히게 됨에 따라 자신의 처지가 한스럽게 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B]에서는 장 씨가 공주의 위치에 놀려 궁비와 시녀에게까지 억눌림을 당하고 슬픔을 느끼게 된 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② [A]와 [B]는 모두 비유적 진술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 [A]의 '나와 공주의 현격함은 하늘과 땅 같도다.', [B]의 '변변찮은 재주 가진 하졸이 머릿수나 채워 우물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같게 만드옵니다.'는 공주의 위세로 억눌림을 당하는 장 씨의 상황을 비유적 진술을 통해 부각하고 있다.

③ [A]는 [B]와 달리 타인에 대한 자신의 원망을 의문형 표현을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오답 [A]에서 장 씨는 '나로 하여금 공주 저 사람의 아래가 되게 하셨는가?', '나의 재주와 용모가 저 사람보다 떨어지는 것이 없고 먼저 혼인 예물까지 받았는데 남의 천대를 감심할 줄 어찌 알리오?'와 같은 의문형 표현을 활용하여 자신이 공주보다 먼저 유세형과 혼인을 했으며, 공주보다 용모가 못하지도 않는데 천대를 받는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며 공주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B]에는 '제가 낭군을 좇는 것을 원망했다면 어찌 깊은 구방에서 홀로 늙는 것을 감심하였사오리까?'라는 의문형 표현이 있지만 이는 장 씨가 유세형에 대한 원망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④ [B]는 [A]와 달리 대화 상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드러내고 있다.

정답 [B]에서 장 씨는 낭군(유세형)에게 공주때문에 자신의 신세가 평생 구차하게 되었다며 신세 한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장 씨가 유세형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또한 [A]에서는 장 씨가 둘째 부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세형이 부마가 되었기 때문이라며 둘째 부인이 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할지 혼자 생각하는 장면이다. 따라서 대화 상대가 설정되어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A]는 앞으로의 일을 추정하는, [B]는 지난 일을 토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우려를 제시하고 있다.

오답 [A]에서 장 씨는 '슬프다, 나의 앞날은 어이 될고?'라고 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하는지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고, [B]에서 장 씨는 유세형에게 진양궁에서 궁비와 시녀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며 비웃던 일 등의 지난 일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신세에 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11

작품 배경의 의미와 역할 파악

정답 ③

선지 선택률	①	②	③	④	⑤
	1%	2%	92%	3%	2%

발문 '장 씨를 중심으로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학문을 연마하는 공간이고, ㉡은 덕행을 닦는 공간이다.  
 ○답장 장 씨가 ㉠에서 학문을 연마하지는 않았으며, ㉡에서 덕행을 닦지도 않았다.
- ② ㉠은 불신을 드러내는 공간이고, ㉡은 조소를 당하는 공간이다.  
 ○답장 장 씨는 ㉠에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슬픔을 토로하였다. ㉡에서 장씨가 비웃음을 당하고 있지 않다.
- ③ ㉠은 한탄을 드러내는 공간이고, ㉡은 애정을 확인하는 공간이다.  
 ○장 씨의 처지 한탄 유세형이 장 씨에게 애정을 느낌
- ④ ㉠은 계책을 꾸미는 공간이고, ㉡은 외로움을 인내하는 공간이다.  
 ○답장 장 씨는 ㉠에서 신세 한탄을 하고 있지만 계책을 꾸미지는 않았다. ㉡은 장씨가 외로움을 인내하는 공간이 아니라 애정을 확인하는 공간이다.
- ⑤ ㉠은 선후 시비를 따지는 공간이고, ㉡은 오해를 해소하는 공간이다.  
 ○답장 장 씨가 ㉠에서 일의 선후 시비를 따지고 있지는 않다. 장 씨는 항거할 뜻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자신의 신세가 구차하고 슬프게 되었다며 한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장 씨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은 장 씨가 오해를 해소하는 공간이 아니다.

12

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 ③

선지 선택률	①	②	③	④	⑤
	4%	5%	72%	7%	12%

발문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유씨삼대록은 유씨 3대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연결한 국문 장편 가문 소설이다. 각 이야기는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갖추고 있어 독립적이지만, 혼사나 그로부터 파생된 각각의 갈등이 동일한 가문 내에서 전개된다는 점에서 연결된다. 이러한 갈등은 가법이나 인물의 성격에서 유발된다. 가문의 구성원들은 혼사를 둘러싼 갈등이 가문의 안정과 번영을 저해한다고 여겼기에, 가문 차원에서 이를 해결해 간다.

- ① 유세기 이야기와 유세형 이야기를 보니, 각각의 갈등이 한 가문의 혼사를 중심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두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군.  
 ○답장 유세기의 부모가 자신들의 허락 없이 백공과 혼사를 결정했다고 생각하여 유세기를 문책하고 집에서 내쫓았고, 유세형이 부마가 됨에 따라 장 씨가 천대받고 한스러움을 느낀 것은 모두 가문의 혼사와 관련된 것이다.
- ② 유세기의 혼사 문제에 선생과 승상이 관여한 것을 보니, 혼사를 둘러싼 갈등 해결이 가문 구성원들의 문제로 다루어짐을 알 수 있군.  
 ○답장 선생과 승상은 유세기의 혼사 문제로 그를 문책하였다. 따라서 혼사를 둘러싼 갈등 해결이 선생과 승상 등 가문의 구성원들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유세기가 혼사와 관련한 곤욕을 치른 것과 유세형이 공주를 멀리한 것을 보니, 가법과 인물의 성격 간의 대립이 갈등의 원인임을 알 수 있군.  
 ○답장 유세기가 집에서 쫓겨난 것은 선생과 승상이 유세기가 부모의 허락 없이 혼사를 결정하여 가법을 어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백공의 거짓말 때문이었다. 또한, 유세형이 공주를 멀리한 것은 유세형이 장 씨를 가려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법과 인물의 성격 간의 대립이 갈등의 원인은 아니다.
- ④ 백공이 유세기를 사위 삼으려는 것과 천자가 유세형을 부마 삼은 것을 보니, 혼사가 혼인 당사자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음을 알 수 있군.  
 ○유세형과 공주의 혼인  
 ○답장 백공은 유세기를 딸의 배필로 삼으려고 일을 꾸렸고, 천자 역시 유세형을 부마로 뽑았다. 이는 혼인의 당사자가 아닌 혼인 당사자의 부친이 혼사를 주도한 것으로, 혼사가 당사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유세기가 평생 첩을 두지 않고 소 소저와 해로했다는 것을 보니, 유세기를 둘러싼 혼사 갈등이 해소되며 이야기 하나가 마무리됨을 알 수 있군.  
 ○답장 유세기는 선생과 승상의 명령을 받들어 예를 삼가고 배우기를 함했으며 소 소저와 더불어 백수해로하였다. 이로 인해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샘 특강 이 문제처럼 <보기>를 활용한 문제에서 선지의 길이가 길어지는 이유는 지문 속 정보와 <보기> 속 설명을 엮어서 한 문장으로 진술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관건은 그 연결의 적절성과 타당성 여부를 알고 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가**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자아의 반성을 촉구하는 매개체  
어디로 불려 가는 것일까,

㉠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시대적 고민에 빠진 적도 없음.

㉡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자아의 반성을 촉구하는 매개체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나** 부정적 상황, 닫힌 상황  
새는 새장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지적 대상, 일상에 갇힌 자신을 의식하는 현대인을 상징함.  
매번 머리를 부딪치고 날개를 상하고 나야 보이는,  
현실적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  
창살 사이의 간격보다 큰, 뭉뚱어리.  
새의 자유를 억압하는 요인  
「하늘과 산이 보이고 ㉢ 울음 실은 공기가 자유로이 드나드는,  
「」: 새가 추구하는 이상적 상황, 자유로운 공간  
그러나 사랑거리며 날개를 굳게 다리에 매달아 놓는,

그 적당한 간격은 슬프다.  
속박으로 인한 슬픔  
「그 창살의 간격보다 넓은 몸은 슬프다.」  
「」: 비교법  
넓게, 힘차게 뻗을 날개가 있고

㉣ 날개를 힘껏 떠받쳐 줄 공기가 있지만  
새는 다만 네 발 달린 짐승처럼 걷는다.  
직유법  
부지런히 걸어 다리가 굵어지고 튼튼해져서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걷는다.

새장 문을 활짝 열어 놓아도 날지 않고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도 행동하지 않는 모습  
닭처럼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다.  
직유법, 새의 본질적 속성을 상실하고 길들여지는 모습을 표현함 ▶ 8~14행: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고 일상에 안주하는 새  
㉤ 걸으면서, 가끔, 창살 사이를 채우고 있는 바람을 부리로 쫓아 본다, 아직도 벽이 아니고

공기라는 걸 증명하려는 듯.  
우리보다도 더 환하고 선명하게 전망이 보이고  
울음 소리 숨내음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고안된 공기,  
에어컨과 같은 인공바람을 만드는 기기  
그 최첨단 신소재의 부드러운 질감을 음미하려는 듯.

▶ 1연: 바람으로 인해 괴로움을 인식함.

▶ 2~4연: '나'가 괴로움의 원인을 탐구함.

▶ 5~6연: 반석과 언덕 위에 서 있음.  
- 윤동주, 「바람이 불어」

▶ 1~7행: 새장 안에 갇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새

▶ 15~19행: 현실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  
- 김기택, 「새」

작품 핵심 스스로 찾기

※ 스스로 작품의 핵심을 찾는 훈련을 한 후에  
'빠르게 보기'에서 확인하세요.

가 윤동주, 「바람이 불어」

1 시적 화자 스쳐 가는 바람과 흐르는 강물을 보고 있는 '나'

2 정서와 태도 부당한 현실 앞에서 방관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 위에 서 있거나 언덕 위에 머물러 있으며 □□□□ 함.

3 표현법

- □□□□ 표현을 활용하여 정서를 강조함.
- □□□□적 태도를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냄.
- 동일한 구조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드러냄.

4 주제 현실에 안주하려는 삶에 대한 □□

나 김기택, 「새」

1 시적 화자 안일한 □□□□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2 정서와 태도 새장 안에 갇혀 □□□□의 기회를 주어도 자신의 삶에 동화되어 □□□□를 포기하며 살아감.

3 표현법

- 직유, 비교, 역설, 상징적 시어를 통해 □□□□을 비판하고 있음.
- 아이러니를 통해 주제를 강조함.
- 자연물의 속성을 통해 시적 의미를 향상화하고 있음.

4 주제 새장에 갇힌 새의 모습을 통한 □□□□의 삶에 대한 □□

**작품 핵심 빠르게 보기**

**가 윤동주, 「바람이 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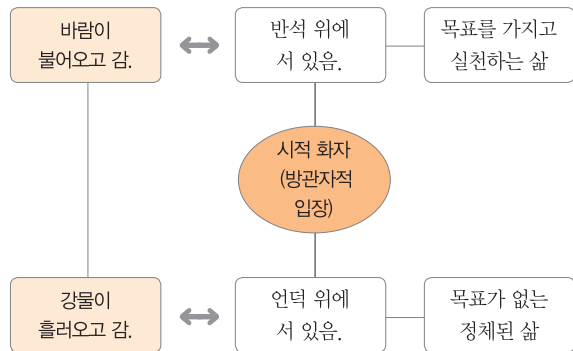
**작품 해설**

이 작품의 화자는 일제 강점기의 현실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것을 알지만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삶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며 역사 앞에서 방관자로 서 있는 자신을 자책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다. 또 화자는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이 흘러가는 '바람'을 느끼면서 자신의 '괴로움'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의 괴로움에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4연에서 '시대'를 슬퍼한 일이 없다는 것에서 화자가 괴로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화자는 바람이 불고 강물이 흐르는 중에 반석과 언덕 위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현실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있다.

**작품 핵심**

① 시적 화자	스쳐 가는 바람과 흐르는 강물을 보고 있는 '나'
② 정서와 태도	부당한 현실 앞에서 방관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반석 위에서 있거나 언덕 위에 머물러 있으며 괴로워함.
③ 표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복적 표현을 활용하여 정서를 강조함.</li> <li>• 자기 성찰적 태도를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냄.</li> <li>• 동일한 구조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드러냄.</li> </ul>
④ 주제	현실에 안주하는 삶에 대한 성찰

**만약 정리**



**윤동주의 자기 성찰**

윤동주 시에서 삶의 현실은 대개 비극적인 상황으로 그려진다. 민족과 국가가 부정되는 일제 강점하의 현실은 왜곡된 역사이며 불모의 땅이다. 그의 「쉽게 씌어진 시」에서는 일제 강점하의 현실에 대한 문제를 관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아무 행동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기 존재를 부끄러워하고 있다. 그가 보여 주는 자기 성찰은 실천적인 행동이 표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자신의 삶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함으로써 현실의 문제에 접근하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자화상」, 「서시」 등과 같은 작품에서도 그는 철저한 자기 성찰의 자세를 보여 준다. 그의 자기 성찰은 내면의 몰입, 순수한 자기화의 문제로 이어진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현실의 아픔만큼 더욱 깊이 의식의 내면으로 파고들어 괴로운 역사가 그 무게만큼 의식의 내면을 억누른다. 이처럼 철저한 자기화의 논리 때문에 그는 자신이 내세우고 있는 신념과 그 실천의 의지 사이에서 끊임없이 성찰하는 것이다.

**나 김기택, 「새」**

**작품 해설**

이 작품은 새장에 갇힌 새의 모습을 통해 도시의 삶에 익숙해진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성찰하고 있다. 이는 새장 안에 갇혀서 자유의 기회를 주어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동화되어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며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비판하는 것이다.

**작품 핵심**

① 시적 화자	안일한 일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② 정서와 태도	새장 안에 갇혀 자유의 기회를 주어도 자신의 삶에 동화되어 자유를 포기하며 살아감.
③ 표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유, 비교, 역설, 상징적 시어를 통해 현실을 비판하고 있음.</li> <li>• 아이러니를 통해 주제를 강조함.</li> <li>• 자연물의 속성을 통해 시적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음.</li> </ul>
④ 주제	새장에 갇힌 새의 모습을 통한 현대인의 삶에 대한 성찰

**만약 정리**



**김기택의 시 세계**

김기택의 시에는 '일상'과 '생명'을 다루고 있다. 현대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권태로운 일상을 관찰한 내용이 담겨 있다. 문명과 산업사회의 이기 속에서 생명이 매몰되어 가는 피폐함을 고발한다기보다는 그 인공적인 환경에서 상생의 방법을 터득해 가는 생명의 경이로운 힘에 주목하고 있다. 그의 시 「사무원」에서는 비인간적이고 사물화된 삶을 사는 현대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업무에 시달리는 사무원의 모습을 불교 수행자의 고행에 비유하여 표현함으로써 주체성을 잃고 사물화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을 풍자하고 있다. 의자에 앉은 사람의 다리와 의자의 다리가 구분되지 않는 모습을 묘사하여 사물화된 현대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자신의 삶을 성찰하지 못한 채 습관에 얽매어 수동적이고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현대인의 비주체적인 삶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13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 ④

선지 선택률	①	②	③	④	⑤
	7%	6%	9%	71%	7%

발문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불러 가는'이라는 피동 표현을 통해 자신이 처한 현실에 순응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근거 |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러 가는 것일까

오답 (가)의 화자는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바람을 느끼고 있다. 바람이 부는 곳에 서서 바람이 어디로 불러 가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이때 '불러 가는'이라는 피동 표현은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없는 현실 상황을 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자신이 처한 현실에 순응하려는 화자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② '이유가 없을까'라는 물음의 형식으로 화자의 정신적 고통에 타당한 이유가 없음을 단정하고 있다.

| 근거 |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오답 '이유가 없을까'라는 물음 형식은 화자 스스로에게 묻는 것으로, 괴로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된다. 이는 화자의 내적 갈등과 성찰을 말하는 것으로, 화자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타당한 이유가 없음을 단정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사랑한 일'과 '슬퍼한 일'을 병치하여 화자의 개인적 불행이 시대에 대한 무관심의 원인임을 암시하고 있다.

오답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와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에서 '사랑한 일'과 '슬퍼한 일'은 괴로움이 실현 때문도 아니고, 시대적 상황 때문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병치한 것은 화자가 자신의 과거 삶을 되돌아보고 떠올린 여러 상황으로 볼 수 있다. 화자의 개인적 불행이 시대에 대한 무관심의 원인임을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없다'의 반복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과 내면을 응시하는 화자의 반성적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정답 화자는 바람이 부는 곳에 서서 까닭 모를 슬픔에 잠기고, 괴로워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화자 내면의 괴로운 이유를 탐구하고 있다. 즉 단정적 표현인 '없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화자 자신의 괴로움의 이유가 무엇일지를 생각하고, 삶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있는 것이다.

⑤ '흐르는데'와 '섰다'의 대비를 통해 변함없는 자연에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근거 |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오답 이 시의 화자는 부당한 현실 앞에서 방관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반석 위에 있거나 언덕 위에 서 있다. '흐르는데'와 '섰다'의 대비를 통해 강물 역시 흐르는데 정작 화자 자신은 흐르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고 있다는 자기 응시를 통해 반성하고 있다. 즉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 부분에서 변함없는 자연에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화자의 의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14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 ②

선지 선택률	①	②	③	④	⑤
	7%	73%	5%	11%	4%

발문 다음에 제시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기와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물의 움직임을 통해 지각되고, 계속 움직이며 대상에 영향을 주는 힘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이런 속성이 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시다.

① ㉠에서는 움직임이라는 '바람'의 속성을 '괴로움'이라는 내면의 흔들림을 지각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오답 ㉠에서는 '바람'이 화자의 '괴로움'을 일깨우는 대상으로 드러난다. '바람'이 계속 흔들리는 속성이 화자의 내면을 흔들고, 괴로움을 지각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에서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 '내 발'을 '반석 위로' 이끄는 힘을 보여 주고 있다.

정답 이 시에서 '바람'을 계속 움직이며 대상에 영향을 주는 힘으로 인식하여 생각하면, ㉡의 '바람'은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화자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 계기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바람'의 속성이 '내 발'을 '반석 위로' 이끄는 힘을 보여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에서는 자유롭게 창살 사이를 이동하는 '공기'의 속성을 '새'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오답 ㉢에서는 새장 밖의 자유로운 공간과 새장 안의 폐쇄된 공간을 드나드는 '공기'의 속성을 통해 '새'가 새장에 갇힌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④ ㉣에서는 '날개'를 '힘껏' 떠받치는 '공기'의 속성을 활용해 '새'의 '날개'가 '공기'의 힘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오답 ㉣에서는 새가 '날개'를 사용하여 비상할 때 공기의 힘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⑤ ㉤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 '창살 사이'의 빈 공간을 찌는 '새'의 동작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오답 ㉤에서는 '이직도 벽이 아니고 / 공기라는 걸 증명하려는 듯' 창살 사이의 바람을 찌는 새의 행위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 새의 동작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선배들의 해결 TIP

이시현 | 서울대 미학과 |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선생님의 안내'라는 또 다른 형태의 <보기>를 통해 바람과 공기에 대한 구결의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야. '대상에 영향을 주는 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만큼, 대상과의 관계에 주목해서 문제를 풀었어야 하겠지? 바람이 부는데도 발이 반석 위에 있다는 시의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②번 선지를 답으로 고르는 것에 큰 어려움은 없었을 거야. 내가 이 문제를 통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오답인 선지는 늘 오답인 이유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①번 선지나 ⑤번 선지의 표현이 시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아. 우리는 어디까지나 보편적 해석 능력을 바탕으로 그 선지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지만 오답인 선지는 해석 이전에 선지에 제시된 표현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것에 가깝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

15

외적 준거에 따른 새로운 가치 발견

정답 ④

선지 선택률	①	②	③	④	⑤
	13%	6%	8%	63%	10%

**발문**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새」에서 '새장에 갇힌 새'는 일상의 안온함에 길들여 자유를 억압하는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의 알레고리이다. '새'의 행동에 대한 묘사는 일상에 충실할수록 잠재된 힘과 본질을 잃어 가는 아이러니와, 일상에 만족하며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준다.

① 몸이 창살에 부딪치고 나서야 창살의 간격이 보이는 새는, 일상에 갇힌 자신을 의식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근거 | 매번 머리를 부딪치고 날개를 상하고 나아 보이는, 창살 사이의 간격보다 큰 몸뚱어리.

오답 이 시에서 새는 매번 머리를 부딪치고 날개를 상하고 나서야 자신의 존재를 깨닫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새의 모습은 일상에 갇힌 자신을 의식하는 현대인의 모습과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다.

② 바깥 풍경이 보일 정도로 적당한 간격의 창살로 된 새장은, 안온함과 억압성이라는 양가성을 지닌 일상을 보여 주는군.

근거 | 하늘과 산이 보이고 울음 실은 공기가 자유로이 드나드는 그러나 실랑거리며 날개를 굳게 다리에 매달아 놓는, 그 적당한 간격은 슬프다.

오답 '하늘과 산이 보이고 울음 실은 공기가 자유로이 드나드는', '그 적당한 간격'의 창살로 된 새장의 모습은 안온함과 억압성이라는 양가성을 지닌 일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하늘과 산'은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공간을, '창살'은 자유를 억압하는 외부적인 요인을 의미한다.

③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부지런히 걷는 새는, 성실한 생활이 잠재력의 상실로 이어지는 아이러니를 보여 주는군.

근거 | 새는 다만 네 발 달린 짐승처럼 걷는다. 부지런히 걸어 다리가 굵어지고 튼튼해져서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걷는다.

오답 '네 발 달린 짐승처럼', '부지런히 걸어 다리가 굵어지고 튼튼해'지는 새장에 갇힌 새의 모습은, 마치 날지 않아서 날개가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닭과 유사하다. 이는 새장 안에서의 성실한 생활이 비상할 수 있는 잠재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아이러니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날개'는 새의 본질적 특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래 날아다니는 새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새장 문이 열려도 날지 않고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 새는,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 오히려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상황을 보여 주는군.

근거 | 새장 문을 활짝 열어 놓아도 날지 않고 닭처럼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다.

정답 <보기>는 '새장에 갇힌 새'를 통해 이 작품이 일상 속에서 잠재력과 본질을 잃고 자유의 가치를 망각한 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통찰력 있게 그려 내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새장 문이 열려도 날지 않고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 새의 모습은, 일상에만 충실하게 살면서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새가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 오히려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상황을 보여 준다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

⑤ 하늘을 자유롭게 날도록 날개를 밀어 올리는 공기를 음미할 대상으로만 여기는 듯한 새는,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고 일상에 안주하려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근거 | 넓게, 힘차게 뻗을 날개가 있고  
날개를 힘껏 떠받쳐 줄 공기가 있지만  
...  
아직도 벽이 아니고  
공기라는 걸 증명하려는 듯  
유리보다도 더 환하고 선명하게 전망이 보이고  
울음 소리 숨내음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고안된 공기,  
그 최첨단 신소재의 부드러운 질감을 음미하려는 듯

오답 '날개를 힘껏 떠받쳐 줄 공기가 있지만', '부드러운 질감을 음미'하는 데 고치고 마는 새의 모습을 통해,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고 일상에 안주하려는 현대인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선배들의 해결 TIP

이진욱 | 서울대 미학과 | 복일고등학교 졸업

<보기>는 (나)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해 주는 힌트라고 생각하면 돼. 이 시에서 '새'라는 소재가 현실이라는 새장에 갇혀 살아가는 현대인들에 대한 묘사라는 것을 <보기>를 통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야. 작품에서는 새장에 갇혀 날지 못하는 새가 결국 날개를 귀찮게 여긴다고 말하고 있어. ④에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라는 말이 있는데 새의 본질은 날아다니는 것이지 달리는 것이 아니잖아? 모이를 향해 달려가는 새는 날개를 이용하여 날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 자신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이것은 <보기>의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는 현대인의 모습과 일맥상통해, 그러므로 ④가 적절하지 않은 선지야.

샘특강

<보기>가 제시해 준 알레고리에 기반을 두고 작품을 이해할 때, 결국 <보기>의 '일상에 충실할수록 잠재된 힘과 본질을 잃어 가는' 것과, 작품 속에서 열심히 걸을수록 날 수 있는 능력이 퇴화하고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새의 모습이 서로 대응되는 것임을 간파하는 게 관건이 된다. 사실 이는 <보기>를 감상의 준거로 삼으라는 문제 유형의 기본적인 해법이다.